

## “평등법...LGBTQ 어젠다 강요하고, 불평등 가져올 것”

###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 입법 시도 규탄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가 평등법 입법 시도와 관련, “LGBTQ 어젠다를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모든 신앙인들에 대한 불평등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레함 목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 법안이 사회에 미치는 위협을 지적하며, 이는 평등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의 스포츠와 도덕성에 위협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레함 목사는 먼저 “평등법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 그 이름은 좋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는 평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기

만적인 법이다. 다만 미국인들이 LGBTQ 의제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연막일 뿐, 기독교인들과 모든 신앙인들에게 많은 불평등을 야기하는 법”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평등법은 도덕적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이들을 처벌할 뿐이다. 또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미국의 여성 및 소녀들의 스포츠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여성으로 식별되는 생물학적 남성들이 모든 연령층에서 타이틀, 장학금 등을 놓고 여성들과 경쟁할 수 있게 된다. 탈의실,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 ©빌리그레함복음주의협회 제공

화장실, 노숙자 쉼터 등에서 여성의 사생활이 침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레함 목사는 “하나님은 오직 남성과 여성만을 창조하셨고, 수천 년 동안 그러했다. 사람들이 성 정체성을 추가하기로 결정한 것도 불과 몇 년 전”이라며 “이 법안은 매우 위험하며, 시민들은 이에 대해 적극적인 우려를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백악관 연락처까지 제공했다.

그레함 목사는 “원로 의원들에게 평등법에 대한 반대표를 던질 것을 요구하라. 하나님께서 입법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 앞에 닥친 위협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길 기도하라”고 덧붙였다.

강해진 기자

## 남가주밀알 올해 91명에 장학금 11만 9천 달러 전달

남가주밀알선교단(단장 이종희 목사)은 지난 6일 산타페 스프링스에 위치한 남가주 밀알 사무실 “2021년도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 수여식” 개최하고 총 91명에게 11만 9천 달러의 장학기금을 전달했다.

남가주밀알선교단은 매년 가을 개최하는 밀알의밤 후원을 통해 장학기금을 마련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 현재까지 장학금 누적 총 지급액만도 264만 4천 달러에 달한다.

올해는 장학금은 미주 장애인장학생 7명과 근로복지생 3명, 꿈나무 장학생 31명, 제3국 및 중남미장학생 10명, 사역자 육성장학금 20명, 코로나19 긴급지원 대상 추가 기금 20명에게 전달됐다.



2021 남가주 밀알장학금 수여식 ©남가주밀알선교단

장학금 수여식은 그동안 감사한인교회에서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해왔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밀알 사무실에서 드라이브 스루 형식으로 비교적 간소하게 진행됐으며, 장학금 전달은 이종희 남가주 밀알 단장과 이은철 목사, 이정수 이사, 그리고 양희원 교수(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롱비치)가 맡았다.

이종희 단장은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많은 분들의 사랑과 정성으로 91 명의 장애인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며 “장애인들이 더욱 큰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학업에 정진해주시기 바랍니다”고 전했다.

김동욱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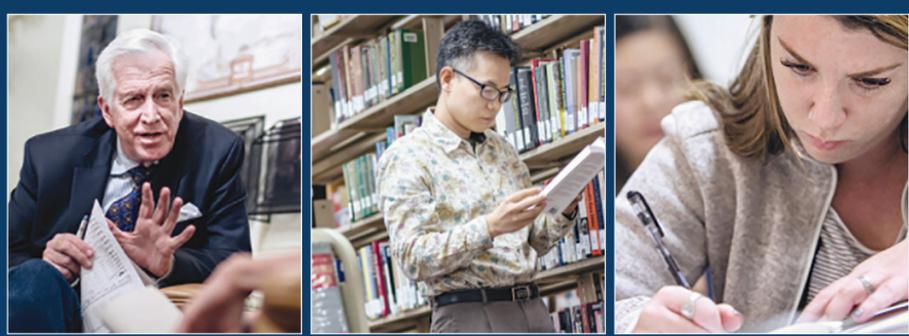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교정, 정직한 올림피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 동 희 원장  
**올림피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rit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그린카피어 리스 & 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크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OLYMPIC ZION AUTO**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SE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Tune-Ups  
 ■ A/C Service  
 \* 월~금 : 8AM~6PM, 토 8AM~4PM \* 32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 (323)730-0112, (323)735-3180**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2021년 가을학기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원의 한영이중언어과정(KEB)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 등록마감일 : 유학생 6월 1일, 미국거주자 8월 15일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GE)  
 ■ 주 소 :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

**한영이중언어과정(KEB,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은**

-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중언어 과정입니다.
- 세계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후원하며 게이트웨이(구, 골든게이트)의 탁월한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이민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역량있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 원적 수업도 지원합니다.
- 북미주 최고의 학력 인증 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LA 한인 가장 골수백혈병 투병...한인 교계 도움 절실

## 한인 골수 기증의 유일한 방법

LA 카운티에 거주하는 40대 한인 가장이 골수백혈병 진단을 받고 골수 이식자를 긴급하게 찾고 있다.

현재 골수백혈병으로 투병중인 정인철(42)씨는 지난해 3월 말부터 밤마다 미열로 몸에 이상을 느껴 코로나19 감염을 의심해 병원을 찾았다가 혈액 검사 결과 급성 골수백혈병으로 진단 받았다.

정 씨의 치료를 위해 남은 방법은 골수 이식밖에 없으며, 골수는 같은 인종이나 민족 가운데 찾아야 하기 때문에 한인들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아시아골수기증협회(A3M)는 "현재 미국에 등록된 2천만 명의 골수 기부자 가운데 아시아 비율은 5%이며, 그 중 한인 비율은 0.5% 뿐"이라며 "정씨를 살리기 위해서는 한은 한인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도움을 호소했다."

남편을 살리기 위해 한인사회에



단란했던 정인철씨 가정. 아내 이원정씨와 9살 딸과 6살 아들.

도움을 호소한 아내 이원정씨는 "골수가 매칭이 되면 수술을 통해 골수를 기증하는 것이 아니라, 당뇨병 환자가 투석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한쪽 팔에서 피를 뽑아 조혈모세포만 수집하고 나머지 피는 다른 쪽 팔을 통해 수혈되는 방식"이라며 "한인들의 등록이 많을수록 매칭 확률이 높아, 한인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요청했다.

골수 기증을 희망하는 한인은 18~44세의 성인으로 기저질환이 없어야 하며, 온라인 사이트(<http://join.bethematch.org/hope4don>)에서 등록하면 된다.

사이트 등록이 완료되면 배달된 DNA 키트에 포함된 면봉으로 입안을 문지른 뒤 다시 돌려 보내면 일치 여부를 검사해 기증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아시아골수기증협회(A3M)는 "한인들의 등록이 많아질수록 정씨뿐 아니라 한인 환자들과 일치하는 골수를 찾을 수 있다"며 "한인사회와 교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욱 기자

## 오픈뱅크와 오픈청지기재단, 2020 오픈청지기 프로그램 수혜 단체 65곳 선정

오픈뱅크와 오픈청지기재단이 2020년도 오픈청지기 프로그램(Open Stewardship Program)을 통해 비영리단체 65곳을 선정해 지원한다.

매년 커뮤니티를 향한 사회환원에 노력하고 있는 오픈뱅크와 오픈청지기 재단은 4월 2020 오픈청지기 프로그램의 수혜단체로 총 65개 단체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오픈청지기재단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2020년도 오픈청지기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을 접수 받았으며 총 81개 단체가 신청했고 이 중 65개 단체를 수혜단체로 선정한 것이다. 2020년 프로그램에는 남가주 뿐만 아니라 북가주와 텍사스주에서도 지원을 받았다.

오픈청지기재단의 도은석 이사장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Covid-19 상황으로 인해 비영리단체들의 활동도 크게 영향을 받아 적지 않은 단체들이 신청조차 못하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오픈청지기재단이 계속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오픈뱅크의 민 김 행장도 "Covid-19으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고 비영리단체들의 경우 봉사해야 할 곳은 많아지는데 활동이 제



7일 화상 기자회견을 가진 오픈뱅크의 민 김 행장이 한인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되다 보니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 같다"며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한 오픈청지기 프로그램이 그동안 많은 발전과 성장을 해왔는데 더 많은 비영리단체들이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단측은 올해도 Covid-19으로 인한 상황을 고려해 지원금 전달식은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지원금은 선정된 단체에 개별적으로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오픈청지기재단은 오픈뱅크가 매년 수익의 10%를 사회환원을 목적

으로 재단에 전달하는 기부금을 이용해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2020 오픈청지기 프로그램과 직원 휴가 기부 프로그램 등 여러 기부 프로그램을 통해 44만 5,500달러를 기부했으며 Covid-19 요식업계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84만달러를 기부하는 등 총 128만 5천 5백달러를 지원했다.

2020년은 오픈뱅크와 오픈청지기재단이 설립된 이후 최대 기부금을 기록한 해가 됐으며, 지난 10년동안 커뮤니티에 기부한 금액도 430만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 민족학교, 2021 한인 및 아시안 장학생 모집

민족학교는 아시아계 학생 중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거나 대학 재학 중인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신청을 받고 있다.

장학금은 정부 뿌리 장학금, 정봉 홍의 장학금, 두레 장학금, 드림 장학금 등 4개 부문에 각각 1500달러씩 지급하게 되며 저소득 학생 또는 기타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우선으로 선발한다.

신청 자격은 한인 또는 아시아 태평양계 출신으로 경제적 곤란을 증명하고 최소한 6학점 이상 수업을 듣고 있는 대학교 재학생이나 2021년 가을학기에 입학할 학생에 한 한다. 모든 수상자는 2021년 5월 중순에 열리는 장학금 수여식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신청서는 온라인([scholarship@krcla.org](mailto:scholarship@krcla.org))으로만 받으며 제출 기한은 4월 12일 까지다. 제

출 서류는 추천서 두 부, 에세이, 향후 목표와 구체적인 경제적 상황과 재정적 필요, 수상 목록 및 추가 활동 사항 등이다.

에세이는 어떤 민족적 유산이나 풍습이 다음 세대에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흥익인간 정신은 무엇이며 당신은 이것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요?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사회와 취약계층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한인 또는 아시안 커뮤니티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팬데믹 기간, 아시안 커뮤니티를 타깃으로 한 인종 차별 범죄와 혐오 표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인 및 아시안 커뮤니티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BLM) 운동과 같이 인종 차별 범죄와 관련해 아시안 커뮤니티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시안 커뮤니티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입니까? 등을 주제로 영어나 한국어로 작성하면 된다. 한국어 작성시 영어 번역을 첨부하면 좋다.

김동욱 기자 문의: [scholarship@krcla.org](mailto:scholarship@krcla.org)

**코엠 커뮤니티 센터**  
**KOAM Christian Community Outreach Center**  
 저렴한 비용으로 도와드립니다.  
 ■비영리단체등록 ■특허  
 ■비영리 단체 세금 보고 ■주 교육국(인준) 상담해 드림  
**David Lee (213)422-8916, (818)523-1119**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 · 오렌지 캠퍼스  
ONLINE COMING SOO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한국어 프로그램

- 목회학 (MAPS)
- 목회학 석사 (M.Div)
- 목회학 박사 (D.Min)

# “미주 한인교계 힘 모아 평등법 막아야”

## 평등법 저지 운동 본부 발족 및 반대 운동 시작

동성애 인권 운동가들이 “포괄적인 동성애 인권법안”이라고 부르는 친동성애 법안인 평등법(H.R.5)이 미 의회의 결의를 앞두고 있어 남가주 한인 교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평등법은 지난달 25일 하원에서는 통과됐고, 지난3일에는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인 척 슈머(Chuck Schumer)의원이 상원에 상정함으로써 미국 사회와 기독교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그간 성소수자 보호를 위한 평등법 제정을 자신의 최고 입법 순위로 강조해온 조 바이든 대통령은 평등법이 상원에서 통과되자마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등법 저지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프랭크린 그레함 목사(빌리그레함 전도협회 회장)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법안으로 불리는 될 평등법이 통과되면 기독교인과 교회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남가주 교계지도자들도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교계 지도자들은 평등법 저지 운동 본부(대표 한기홍 목사)를 발족하고 반대 운동을 시작했다. 실행위원회(위원장, 강순영 목사, 공동위원장 샘신 목사)는 지난 9일 오직 예수 선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평등법의 위험성을 알리고 저지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실행위원회는 “평등법안이 실행되면 유아원에서(Kinder)부터 아이들은 자신의 성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받고, 정체성을 찾기 위해 서로 실험, 실습하도록 장려되어 분별력이 없는 어린 시절에 무방비적 동성애에 노출될 수 있다.

또 공립학교, 비즈니스, 회사뿐 아니라, 교회, 기독교 학교와 단체들까지도 성소수자 직원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며, 생물학적 남성에게 여자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및 여성 스포츠 참여를 허용하게 될 수



평등법 저지 운동 본부 실행위원들은 오직예수선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반대 운동을 설명했다.

있다”고 우려했다.

실행위원회는 이어 “평등법을 바탕으로 남가주 아이들이 여자 트랜스라고 하면, 여자아이들과 같은 텐트에서 캠핑 및 하룻밤 여행을 할 수 있으며, 십 대들에게도 사춘기 차단제 호르몬(puberty blocker), 절단 수술, 화학 및 외과 적 낙태에 대한 보험까지도 학부모의 의견을 묻

지 않고 제공할 수 있다. 또 평등법을 준수하지 않는 교회, 학교, 그리고 단체들은 인가가 취소되거나 정부 지원이 중단 될 수 있다”며 “교계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해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평등법 저지 운동 본부는 목회자세미나, 기자회견 등을 개최할 예정이며, 미주 전역의 교회

협의회들과 협조해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시키기로 결정했다. 또 강순영 목사(310 995-3936), 공동위원장 샘신 목사(213 215 6029), 사무총장 강태광 목사(323-578-7933) 등 문의 창구를 열고 평등법 저지 운동에 대해 알리기로 했다.

김동욱 기자

# “종교 예배는 필수” ...캘리포니아 상원의원 새 법안 제출

미국 캘리포니아주 브라이언 존스(Brian Jones) 상원의원이 대유행과 같은 비상 사태 동안에도 종교 예배를 ‘필수(essential)’ 행위로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기독교일보 영문판이 18일 보도했다.

“종교는 필수 행위(Religion Is Essential Act)”라는 제목의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 법령에 “8571, 8627, 8627.5, 8634 조 및 8655조를 수정, 제7장에 18.5조를 추가하여, 비상 지휘권과 관련된 보건 및 안전 법규의 조항을 개정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정부가 비상사태 동안 종교 예배를 계속하도록 허용할 것과 “종교 예배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보건, 안전 또는 적용 요건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또 종교단체가 ‘정부의 과도한 접근(government overreach)’을 당할 경우에 행정 또는 사법적 절차에 따라 구제를 청구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크리스천 헤드라인’에 따르면,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가족 협의회(California Family Council), 캐피톨 리소스 연구소(Capitol Resource

Institute), 주데오-크리스천 코커스(Judeo-Christian Caucus)가 공동 후원하고 있다.

존스 의원은 자신의 웹사이트에 발표한 성명에서 “뉴섬 주지사사 미국 전역의 민주당 정치인들은 교회, 모스크, 사당, 유대교 회당, 사원 등을 불법으로 폐쇄했다”며 “미국인들은 종교적 자유가 보장되고 자신이 선택한 예배당에서 동료 회원들과 함께 모일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11개월 동안 코로나라는 구실을 이용해 이러한 권리를 침해했고, 그의 동료 민주당 의원들은 가만히 그들의 손바닥에 얹은 채,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자비롭게도, 최근 들어 미국 대법원이 우리의 종교권을 되돌려줬지만, 다시 그 권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 예배 전경.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 페이스북

리를 훼손하겠다는 뉴섬과 다른 이들의 위협은 여전히 보인다”고 후속 조치의 가능성에 대해 경계했다.

아울러 그는 “한 사람이 종교를 실천하는 것은 전염병 중에도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국가는 종교를 실천하는 사람들을 ‘이류 시

민(second class citizens)’으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 대법원은 이달 5일 캘리포니아가 교회의 실내 예배를 금지하기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으며, 실내에서 찬송 등 노래는 제한하되, 시설 수용 인원의 25% 이내에서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이 판결에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6명이 교회 측의 입장을 지지했으며 3명은 반대했다.

로버츠 판사는 판결문에서 “동굴과 같은 성당에서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최대 인원을 0명으로 제한한 주 정부의 현재 명령은 전문 지식이나 재량에 의한 것이 아니”라며 “이해 관계에 대한 감사나 고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유진 기자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복음통일선교도서**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

Righteous Outlaw

복음의 빛

책의 추천자들: 오대원목사(예수도단), 주선애교수(장신대 영예교수), 이종희교수(예수도단), 송정명목사(복음선교회), 권준목사(수필라이프), 신정민목사(복음선교회), 유관지목사(홍익포럼), 김인식목사(KCC공공대)

\* 영의 책은 아예 번역제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20/권당 + \$5 우송료

지금까지 3만 5천부가 판매된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과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북한 간부 출신의 자전적 스토리와 지하성도들의 순교종언으로 지역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기적같은 여정이고, 우리에겐 복음통일의 완수라는 분명한 메시지의 율입니다.

\* 체크오더양: GBMW 모든 기부금은 세금공제의 혜택을 받는 세금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기독교복음선교회 GBMW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425)775-7477 gbmwu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이벤트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 안녕 하세요? 18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날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돌려받으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8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이민 푸엔테힐스 현대 HYUNDAI Puente Hills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미국 정착의 지름길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미국정착을 도와드립니다

# 이민법 전문 변호사

#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투자이민 상담환영**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자상사 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학생비자
- 가족초청 이민업무
- 체류기간 연장
- 시민권 취득
- 추방 재판
- 기타 전반 이민업무

www.davidlimlaw.com

**임상우** 이민전문로펌 **213.251.5554**

Law Offices of David S. Lim |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os Angeles, CA 90010 / Fax 213.251.8451

✉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197

# “연합의 시기 - 다민족이 한 팀이 되어 열방을 가다(1)”

필자는 2007년 터키를 시작으로 이슬람권 선교를 지금까지 이어 왔다. 물론 교회 단독이 아니라 이슬람 선교의 전문 선교단체들의 훈련과 프로젝트에 따라 교회들이 연합하는 선교를 지향했다.

필자는 두 단체를 따로 섬기며 사역을 했다. 한 곳은 미국에서 한인교회 목사들이 연합하여 이슬람을 위한 연합기도 사역에 주력했던 선교교회이다. 또 하나는 한국에서 35년전 선교지향적 대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선교교회이다. 각기 특징이 있고 장점이 있다. 미국에서 세워진 선교교회는 담임목사들과 현지 선교사들이 연합하여 이끌어 가므로 매우 안정적이고 시행착오가 적었다. 한국에서 세워진 선교교회는 대학생 및 청년들이 이끌어감으로 열정과 성과 및 현지 복음율이 매우 높았다. 필자는 많은 교회의 교인들을 선교지향적 교인으로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목회 철학도 선교의 선교참여에 두었다. 물론 목회하면서 몇 번 바뀌어진(필자는 진보라고 믿는다.) 철학이었다.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세계선교를 감당해야 하는 앞으로의 교회의 선교 모습에 대한 것이다. 2001년 9.11 테러사건 이후 이슬람권 세계는 미국 위주의 선교사 활동에 급제동을 걸었다. 서양의 백인계 선교사들의 이슬람권 선교 활동이 매우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시기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교는 멈추지 않는다. 선교의 방법이나 사람을 바꾸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사역을 시행하셨다.

하나님 선교의 첫 번째 도구는 역시 사람이었다. 이슬람권에서 오랜기간 터를 두고 사역하던 백인계 선교사들이 터키, 아프카니스탄, 이란, 예멘 등에서 대거 추방되면서, 또 순교가 일어나면서 많은 수가 사역을 떠났다. 그 자리를 하나님은 우리 한인 선교사들에게 넘기셨다. 이것은 필자의 믿음이다. 한국도 아프카니스탄 순교로 인해 이슬람 선교가 주춤할 때 미주를 중심으로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셨다.



이상훈 목사  
멕시코장로회신학대학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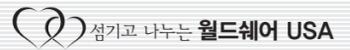
그런데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는 매우 신비한 특징이 드러나고 있다. 그것은 교회의 구성원들이 다민족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의 아들도 얼마인 한 한인교회의 EM 목회자인데 그 안에도 다양한 인종이 모인다 한다. 딸아이는 대학생 선교사로 16개월간 이라크에서 선교활동을 했다. 그때에도 그의 팀원들의 반 이상이 다민종이었다. 그리고 이미 미국안에는 각 나라들에서 난민으로 온 난민 2세들이 영어권이 되어 우리 한인 청년들과 네트워크를 시작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일인가를 잘 아는 필자로서는 뜨거운 영적 전율이 느껴질 수 밖에 없었다.

이슬람의 선교 이야기를 하는 필자는 지금 멕시코 민족장로교단 산하에 있는 멕시코칼리 신학교 교정에서 현재 60여명의 현지인 학생들을 돌보고 섬기며 지낸다. 필자는 하나님께서 멕시코를 비롯한 남미교회를 세계선교의 리더십으로 세우실 때가 곧 오리라 생각한다.

이유는 우선 우리 신학교가 있기 때문이다. 60명 중에 5명이 세계 선교의 꿈을 꾸고 있다. 멕시코는 이들에 의해 앞으로 선교 대상국이 아닌 세계선교 파송국가가 될 것이다. 이들보다 한 걸음 먼저 나간 우리 한인선교사들의 가장 큰 동역자 그룹이 될 것이다. 스페인어를 하는 이들은 이미 영어도 잘하며 아랍어를 습득하는 데 한인선교사보다 빠르다.

인간의 죄로 인해 인류를 흠으셨던 하나님은 이제 인류 구원을 위해 민족들을 모으고 계신다. 디아스포라 한인교회가 그 중매의 역할을 열심히 해야 할 때이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고 계신다.(계속)

강태광목사의 인문학 강의



## 인문학으로 읽은 바울의 생애 ⑧ “살라미”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 받은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팀은 안디옥을 출발해서 도보로 실루기아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갑니다(행13:4). 바울과 바나바가 첫 선교지가 구브로섬(행 13:4~14)입니다. 구브로섬은 현재 키프로스(Cyprus: 사이프러스라고도 부름)입니다. 사이프러스에서 한국 황진하장군(육사25기, 중장)이 유엔(UN)의 평화 유지군 사령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어 우리들에게 친숙한 곳입니다.

구브로는 시실리(Sicily)와 사르디니아(Sardinia)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섬이며, 1960년 8월 16일에 탄생한 지중해에 있는 섬 국가입니다. 1878년부터 1960년까지는 영국이 식민 통치를 했으나 1960년에 독립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키프로스는 남북으로 분리되어 남쪽은 그리스 계통으로 북쪽은 터키 계통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구브로는 형식상으로는 터키도 아니고 그리스도 아닙니다. 정치도 독립 되어 있고, 구브로 파운이라는 독자적인 화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는 니코시아(Nicosia)입니다.

구브로는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이집트와 소아시아의 중간에 위치하기 때문에 많은 배들이 왕래하는 국제항구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브로는 고대 국제 무역이 활발했습니다. 구브로는 구브로에서 나온 은과 구리와 삼나무(선박의 재료)등을 수출하여 경제적으로도 번영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구브로에서 최초 선교를 시작할 때 이 섬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으며 로마 원로원에서 임명한 서기오 바울이 총독으로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살면 지중해를 왕래하는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구브로는 단순한 바나바의 고향이 아닌 세계로 가는 길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다소 등 큰 도시가 있는 북쪽으로 가지 않고 실루기아로 내려와 구브로로 내려갑니다. 구브로가 복음화 되면 여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기서 세계 각처로 그 복음이 퍼져 나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 시대 상황을 고려하면 구브로는 세계로 뻗어가는 선교의 길목이었습니다.

구브로를 향하던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 섬 동쪽 끝에 위치한 살라미 항구에 도착합니다(행13:5). 살라미가 파송된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의 첫 선교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살라미는 성경에 기록된 공식적 파송 선교사의 첫 선교지입니다. 살라미(Salamiv):sal-am-eece:살라미스는 평화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샬롬’에서 온 듯합니다. 이 이름은 여러 가지 철자로 표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와 비잔틴의 작가들은 보통 Salamivyn(살라미네)로 언급합니다.

살라미는 지중해 동부에 있는 구브로섬 동쪽 끝에 위치한 항구도시입니다. 구브로 섬의 오래된 수도로서 상업 도시 살라미는 시리아 맞은편 동부 연안의 낮은 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살라미는 B.C. 6세기에 그리스의 통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살라미는 이 섬이 이집트 지배를 받을 때 총독의 거주지였고, 로마가 이 섬을 지배할 때에는 바보가 총독 거주지였습니다.

살라미는 고대 전사에 나오는 살라미 해전 유명합니다. 기원전 480년, 지중해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도시국가 그리스와 당 대 제국인 페르시아가 지중해 패권을 두고,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스는 380척으로 750척에 달하는 페르시아 군에 대항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도시 국가인 그리스가 강대국인 페르시아를 이기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군이 페르시아 대군을 무찔렀습니다.

그리스군은 후퇴를 가장한 기만 전술로 페르시아 군을 좁은 해협(살라미스 해협)으로 유인해 기습 돌격하여 페르시아 함대 200척을 침몰시켰습니다. 이 해전으로 페르시아군 4만 명을 수장시켰습니다. 그리스 군 사령관인 테미스토클레스는 전술과 전략으로 이기는 전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이순신 장군의 명량(울돌목)대첩과 흡사한 전술이었습니다.

역사학자 해겔은 자신의 저서 “역사철학”에서 살라미해전을 평합니다. “역사의 관심사는 저울 위에 놓인 것과 같다. 한편에는 한 명의 군주와 그의 힘 아래 뭉친 동방의 전제국가가, 다른 한 편에는 보잘것없는 자원과 규모에도 불구하고 자유와 개성이 독특한 도시 국가들이 전투대형으로 맞섰다. 역사상 정신의 힘이 물질의 양보다 우월하다는 것이 이렇게 명백하게 드러났던 적은 없었다.” 살라미스 해전의 역사적 의미입니다.

바울 일행이 방문할 때 살라미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구브로 살라미에 도착하여 즉시로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은 새로운 도시를 방문하면 회당을 찾아가 말씀을 전하면서 해당 지역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여러 회당이라는 말은 상당한 유대인들이 살라미 지역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웅성하는 도시와 지역을 찾아 거주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살라미는 헬라 시대와 로마 시대에 번성했습니다. 아직도 그 시대의 유적지인 원형 경기장, 극장, 체육관, 등의 유적지가 살라미에 남아 있습니다. 살라미에서 약 5Km 떨어진 곳에 순교한 바나바 무덤과 바나바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전승은 바나바는 살라미에서 유대인 폭도들에게 순교 당했습니다. 구브로 출신의 요셉, 위로의 아들 ‘바나바’는 자신의 고향에서 순교하였습니다.

## 기독교일보

편집위원 : 박희민, 정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LA 노숙자지원, 아이티 쓰레기마을 아동지원, 수리남 참전용사 자녀돕기에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 당신의 일부를 나누면 한 아이 인생의 전부가 바뀝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질병과 가난에 허덕이는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됩니다.

작은 나눔 (30불, 50불)으로 희망을 나누는 행복으로 초대합니다.



World Share USA

3123 W. 8th St. #206 LA, CA 90005 후원 문의 : 강태광 목사 T.(323)578-7933

# 교회성장학과 성공적인 목회론에의 반성(1)

## 교회의 부흥, 교회성장론과 목회성공에의 재인식(3)

기본적으로 교회의 부흥은 예수 를 믿지 않은 죄인들이 돌아오게 하 나니 앞으로 돌아오는 사도행전의 사건들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하나 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 들이 새롭게 되는 것을 가장 기뻐 하시며 즐거워하신다. 그런데 대부 분의 교회론 교과서들은 교회 체계 에 대한 교리들과 이론적인 내용들 로 구성되어 있다. 목회학의 초점은 목양사역의 부흥과 갱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리더쉽에 매달리고 말았 다. 교회론은 성장을 다루는 목회학 이나, 대외적인 사역으로 전도학이 나 선교학에서 다루는 내용과 연관 성이 많은데, 초점은 잃어버린 영혼 의 수확이다.



©Pixabay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 기독교계 에 소개되어 오던 교회론과 목회학 은 어떠했는가? 아직도 한국교회에 서는 “교회성장학”과 “목회 성공” 에 매달리고 있다. 교회성장 세미 나에서 사용하고 권장하는 방법론 과 전략들은 거의 대부분 교회의 본 질을 훼손할 정도로 세속적인 것들 을 포함하고 있다. 가장 효과를 두 드리지게 보여주는 양적인 성장을 위한 방법론이 우선적이다. 안타깝 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서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하는 중심 주제들은 완전히 뒷전으로 밀리고 말았다.

“교회성장학” (church growth) 이라는 용어와 방법들은 미국 폴리 신학교 도널드 맥가브란 교수가 세 계 선교를 위해서 지극히 세속적인 사회학과 분석 등을 활용하도록 처 음 도입하였다. 그는 인도 선교사의 3세대 자녀로서 어떻게 하면 교회 가 정착하여 발전할 것인가를 전략 적으로 접근하였고, 교회사에서 부 흥이 일어났던 시기에 중요한 특징 들을 찾아냈다. 1965년에 폴리신학 교에 세계선교대학원을 정착시키고, 수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에 게 어떻게 하여 교회를 세워나갈 것 인가를 가르쳤다. 전도와 제자훈련 이라는 방법이 주된 내용이었지만, 전략은 사회학과 세속 사회에서 얻 어온 것들이었다. 그 후로, 한국교 회 목회자들도 수없이 많은 교회성 장론과 목회성공 방법들을 만들어 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세속적인 개념들을 한국 교회가 사 용해서는 안된다.

1986년에 “미국 교회 성장을 위 한 협의회”(the American Society for Church Growth)가 결성되었 는데, 이들이 지향했던 교회성장학 의 핵심이 무엇이었는가? 이 모임을 주도했던 선교신학자 맥가브란 의 인도에서 경험한 선교사역은 높 이 평가할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

가 문제로 제기하는 동기가 과히 물 질주의적이라고 할 수 없기에 긍정 적인 부분들도 있다. 하지만, 사도 바울과 같이, 그의 전도와 복음전 파 사역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을 영화롭게 하려는 입장이 다소 부 족했음이 안타까울 뿐이다. 그는 세 가지 핵심 내용으로 요약 하였다.

첫 번째 기본원리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아내 고 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다. 전체 신약성경에서 기독교인들이 구세주이자 하나님인 예수 그 리스도를 선포하게 되어지면, 남자와 여자들이 교회의 책임있는 회원 이자 제자들이 되도록 격려할 것이 라는 점이다. 두 번째 핵심 원리는 교회 성장의 원인과 방법론들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나 님께서 우리에게 선교 대 사명을 주 셴는데, 반드시 활용 가능한 방안들 을 동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흥의 정도와 쇠퇴의 원인들을 발견해서 실제적인 결과를 낳아야 한다. 세 번째 원리는 목표를 명확하게 정하 고,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데려 올 수 있는 과감한 전략들을 개발하 라는 것이다. 새로운 교회들을 개척 할 때에 의미있는 확신의 결과물이 나오도록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교회성장은 참석하는 성도들을 늘이는 양적인 방법론들을 개발하는 것이다. 미국 에서 초대형 교회를 추구하는 목회 자들은 초신자들이나 방문자들이 편안하게 느껴지도록 모든 교회시 설들을 창조적으로 재정비하는 방 안을 강구했다. 매력적인 교회 모델 로는 아이돌봄 센터, 스포츠 프로그 램, 현대식 음악을 채용하여 금요일 이나 토요일에는 주일 예배와는 전 혀 다른 개방형 집회를 개최하였다. 독립적인 침례교회들과 은사운동 교회들, 연합감리교회 등이 호응했

지만, 미국 장로교회와 개혁신의 교 회들은 그리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 았고, 신학대학원에서도 목회학 강 좌에서 비판 일색이었다.

교회성장학의 방법론들에 대해서 일반 신학계와 교회 지도자들의 평 가를 간략히 정리한 책자가 나왔다. 맥가브란의 제자들이 집중적으로 기고한 책, 『교회성장학에 대한 다섯 가지 관점들』 이다. 이 책은 기본 적으로 성장의 전략들을 긍정하는 입장에서 서술하였고, 그에 대한 비 평적 평가들을 담고 있다. 목회적 방 법론에 관심있는 교회 사역자들이 라면 충분히 살펴볼 수 있을 것이기 에, 필자가 여기에다가 이 책에 기고 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의 입장을 다시 재조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핵심만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교회성장학에 대한 다섯 가지 관점들』의 편집자, 엘머 타운은 폴리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를 수료 한 입장이므로, 교회성장의 방법론 을 옹호하는 변증에 치중했다. 그는 어떻게 교회성장을 하는지 발견하 기 위해서 사회과학들의 조사 방법 론들을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혁신의 선교학자 크레이 반 겔 더는 교회성장의 사고방식에 의문 을 제기했고, 교회성장학이라는 주 요 논쟁점들은 제쳐두고, 선교학적 인 문제인 “복음과 문화”에 대한 관 점들을 다루었다. 자신의 전공에 치 중하면서, 그는 선교적 교회로 나가 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는 선에서 그 쳤다. 찰스 반 엔겐은 교회성장학을 지지하는 입장이면서도, 자신만의 신학적인 입장이 어떤 것인지 확실 하게 보여주지 못하였다.

개혁신의 입장에서 교회성장학 을 비판한 게릴린 반 리난은 교회 성장학에 대해서 공손하면서도 신 략한 비판을 가했다. 성경의 권위 를 존중하기보다는 광포한 실용주

의 노선에 근거하고 있다고 지적하 였다. 미국의 상업주의를 분석해보 면, 실용주의가 자리하고 있는데 이 런 사상은 비기독교 사상이다. 하워 드 스나이더는 “교회성장” 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할 것 을 주문했다. 교회성장에 집중하게 되면, 복음의 사회적 참여와 기여를 소홀히 하는 쪽으로 나가게 된다는 지적이다. 전체적으로 이 책은 교회 성장학에 대해서 철저하고도 치열 한 비판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필자가 이 책에 실린 교회성장학 을 개혁신의 입장에서 평가할 때에 가장 심각하게 느껴지는 문제점은 바로 성경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관 점이다. 이들 저자들은 교회 성장에 필요한 내용들과 프로그램들이 우선이고, 그런 방법들을 성경에서 찾 아 제시하려는 의도에서 본문들을 활용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교회성 장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내용 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다. 성경 의 권위가 궁극적으로 지켜지지 않 았고, 교회성장의 프로그램이 더 우선시 되고 말았다.

우리는 교회 성장이론의 관점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교회의 성장을 중요시 한다는 것은 그들의 신학적인 강조점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교회성장의 안목에서 소중한 것 들은 강조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 은 중요한 요소들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이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동 반하는 예배가 중요한가,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이도록 하는 요소 들이 더 중요한가? 이것은 결국 성 경에서 강조하는 참된 교회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음을 반영하는 것이 다. 성경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오직 더 많은 숫자를 모이게 하는데 치중하는 것 은 교회론의 변질이자, 정말로 나쁜

신학이다.

한국 속담에는 “핑 잡는 게 매다” 는 말이 있다. 결과를 만들어내기만 한다면, 잔인한 수단도 정당화하려 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식 실용주의 를 집약한 말이다. 서양에서 활용되 고 있는 상업적 실용주의는 철저하 게 “실용성”(useful)을 지식의 근간 으로 삼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인데, 니체의 인간중심주의에서 나온 것 이다. 결코 하나님 중심으로 남을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할 하늘나라 백성들이 배워야 할 삶의 태도가 아니다. 이런 속담은 마치 세속정치에서 가장 잔인한 혈투가 집약된 『삼국지』 이야기와 유사 하다고 하겠다. 우리는 옛날 중국에 서 세 나라의 혈투를 자주 인용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들에게서 배울 것이 별로 없다. 건전한 신의와 윤리와 대의를 중요 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직 수단 방 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쟁취하는 자가 승리하게 된다면, 그런 나라의 미래는 과연 무엇일까? 정치와 기 업은 오직 생존 목적을 위해서 권모 술수를 일삼는 책략가들이다. 교회 가 과연 그런 단체들을 닮아가야 하 는 것인가?

우리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 에 치중한다면, 결국 사람의 이론 에 머물고 만다. 목회 성공의 신학 이 사람에게서 나온 생각을 정리한 것이라면, 그 성공은 가짜에 불과하 다. 사람의 지혜와 과학과 이론들은 일시적인 성공에 도움을 줄 수 있 을지 모른다. 우리는 수많은 한국교 회에서 소위 목회에 성공했다는 사 례들을 보아왔다. 그동안 짧은 기독 교 역사를 가진 한국교회에서 목회 성장이 가져온 결과가 무엇을 남겼 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소위 한국 대형교회들의 지도자들이 어떤 결 과를 빚었던가를 냉철하게 되돌아 보아야 한다.(계속)



**김재성 박사**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부총장

# 2021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홍준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회(BA), 목회학사(M.Div), 상담학사, 선교학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경호 박사 71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이상훈 박사, 이사장 : 조종근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 aeu.master@gmail.com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626)857-2200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 미 최대 개신교 입양 단체, LGBT 커플에 위탁 허용...교계 우려

미국 최대 개신교 입양 기관이 LGBT 커플에게도 위탁을 제공한다고 발표하자 교계 지도자들이 우려가 표명하고 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시간 주에 위치한 '베다니 크리스천 서비스(Bethany Christian Services)'는 1일 전국적으로 LGBT 가정에도 아이들을 배치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단체는 또 동성애 커플들과 함께 일하지 않은 곳을 포함해, 모든 직원들을 교육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에 따르면 베다니는 2019년 3,406명의 위탁 가정과 1,123건의 입양을 성사했으며 전국 32개 주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복음주의를 표방해 온 단체의 이번 결정은 미국 내 기독교 복음주의 지도자들은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나단 볼트(Nathan Bul) 역사복음주의단체(HEO) 수석 부회장은 성명을 통해 "예수에 대한 믿음이 그들의 사명의 핵심에 있다"며 "입양

단체가 기독교인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다양한 교리 문제에 대한 입장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미국 남침례교 차기 회장 후보인 알버트 모홀러(Albert Mohler Jr.)는 베다니의 이번 결정에 대해 "도덕적 혁명가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결정한 것"이라며 "이 혁명가들이 현재 사회의 모든 개인, 모든 기관과 학교, 모든 종교 교단, 입양 및 위탁보호 기관이 전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본인의 웹사이트의 '더 브리핑'을 통해 "이번 결정은 LGBTQ 공동체의 요구에 대한 절대 항복을 의미"한다며 "지금 우리는 미국에 만연한 정치적 좌파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홀러는 또한 베다니가 정부와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기독교 신념의 부분(Christian convictional part)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고, "결혼과 부모, 가족을 재정의한다는 것은 문명을 재정의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포커스 온 더 패밀리' 대표인 짐



백악관 앞을 지나가는 LGBTQ 퍼레이드 참가자들. ©케이아메리칸포스트

델리(Jim Daly)는 트위터를 통해 "베다니는 깊이 종교적 신념을 지키는 것과, 자녀와 가족을 위해 봉사하는 것 사이에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며 "어떤 정부도 그들의 사역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를 말해선 안되며, 성경적 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고 외압 가능성을 시사했다.

남동부 침례신학교의 다니엘 아킨(Daniel Akin) 총장은 베다니의 결정에 대해 "문화적 압력에 대한 매우 실망스러운 항복"이라며 "아이들은 건강하고 성경적인 가정에서 아빠와 엄마가 필요하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러셀 무어(Russell Moore) 윤리 종교자유위원회 위원장도 "많은 이들이 이처럼 이번 결정에 실망했다"며 "이번 조치는 신앙에 기반한 고아 돌봄 사역들의 기존의 노력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유진 기자

## 뉴욕주립대, SNS에 동성애 반대글 올린 학생에 정학 처분



©Unsplash/Tim Mossholder

SNS에 동성애를 부정하는 게시물을 올린 미국인 대학생이 학교로부터 정학 처분을 받았다고 미국 보수 성향 매체인 '데일리 와이어'가 최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웬 스티븐스(Owen Stevens)는 올해 1월 뉴욕 게네세오(Genesee) 주립 대학으로부터 정학 통보를 받았고, 사건의 발단은 작년 11월 22일, 스티븐스가 자신이 찍은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린 것이었다.

이 영상에서 그는 '두 성별의 생물학'과 '좌파주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와 같은 주제에 대해 자신의 보수적인 견해를 밝히며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남성은 여성이 아니며 여성은 남성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남자는 여자가 될 수 없고, 여자는 남자가 될 수 없다. 만일 내가 남자인데 여자라고 생

각해도, 나는 여전히 남자다. 내가 남자라고 생각하는 여자라고 해도 난 여전히 여자"라고 강조했다.

또 "당신이 내면에서 느끼는 것과 상관없이 당신의 생물학적 상태는 무관하다. 생물학은 바뀌지 않는다"며 "생물학은 매우 명확하고 이진법적이며 쉽다. 당신은 결국 남자나 여자, 둘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올해 1월, 스티븐스는 대학으로부터 정학 통보를 받게 되었고, 해당 이메일을 캡처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대학은 성명에서 "스티븐스의 행동은 전문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며 "그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은 자신의 편협한 견해를 벗어난 정체성이나 문화를 가진 개인의 고유한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이에 스티븐스는 이 게시물에 답글을 달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좌파주의는 파괴를 일삼는다. 이것이 증거이고 절대적으로 미친 짓"이라고 반박했다.

데일리 와이어에 따르면, 이메일은 이 대학의 교육학장이 보낸 것으로서, 미래의 교사들은 다양한 성 정체성과 동성애의 모든 측면을 지원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학장은 또 스티븐스의 성별에 대한 입장이 '뉴욕의 모든 학생을 위

한 존엄성 법(New York's Dignity for All Students Act)'과 충돌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븐스는 이 대학의 총장실에서 보낸 별도의 이메일도 인스타그램에 게시했다. 서한에는 "게네세오 커뮤니티의 일원으로서 이런 정서를 읽으면서, 트랜스·제3의 성·성별을 알 수 없는 학생들과 그 동맹에 불안감이 커진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는 이에 대해 "그들은 보수주의자들의 기본적인 반대 의견을 비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절대 비현실적"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데일리 와이어에 자신이 소위 '의식이 깨어난 사상 경찰(woke thought police)'이 되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위협과 끔찍한 사건들을 접했다"며 "나는 정의와 옳은 일을 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매체에 따르면 스티븐스는 '저스트 오웬'이라는 팟 캐스트의 진행자로 활동하며, 보수적 가치와 기독교적 관점을 통해 문화와 시사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전해진다.

게네세오측은 그에게 인스타그램 영상 삭제를 요구하며, 소셜 미디어에 대한 재교육 강화를 이룰 때까지 정학 처분을 유지한다고 밝혔으나, 스티븐스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강연숙 기자

## 톰 행크스 아들 "무신론에서 기독교로 개종"

미국 할리우드 배우 톰 행크스의 아들이자 뮤지션인 체스터 행크스가 "하나님의 손길로 무신론자에서(기독교로) 개종했다"라고 밝혔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지난 2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한 쳇 행크스는 10대 시절, 나쁜 행동을 하던 그를 부모가 야생 캠프로 보냈다고 사연을 시작했다.

그는 "당시 어린 시절이었지만 하나님이 실재하심을 깨달았다"라며 유타의 외딴 지역에 있는 캠프에서 12주를 보냈다고 한다. 분노로 가득 차고 '무신론자'라고 공언했던 그는 '하루 동안의 하이킹'이 그의 인생을 바꾸었다고 공개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절벽 가장자리에 앉아 그저 전망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며 "12주 동안 사막에 갇혀 있어 그저 지루하게 느껴졌고 볼 것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둘러싼 아름다움에 너무도 압도당해 360도를 둘러봤다. 인간적인 것은 전혀 없었다"라며 "하나님의 손길에 감동 받은 것 같았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분을 저에게 계시해주셨다. 모든 분노와 증오가 무한한 희망, 감사, 평화, 사랑으로 바뀌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감정에 너무 압도되어 그저 절벽 가장자리에 앉아 울었다. 통제할 수 없어서 한 시간 동안 울었다.



©쳇 행크스 인스타그램

멈출 수 없었다. 그것은 모든 것의 눈물이었다. 모든 감정과 고통, 기쁨을 한꺼번에 느끼는 눈물이었다"라고 했다.

쳇 행크스는 16세에서 24세 사이 마약과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했다고 시인했다. 팟캐스트 진행자는 그 당시 그가 만난 영적 경험이 마약과 같은 '환각제'로 인해 기분이 좋아지는 것과 비슷하지 몰었지만 그는 전혀 비슷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그는 "환각으로 인한 경험은 이것에 근접하지도 않다"라며 "그 순간, 제 영적 인생이 탄생했다. 저는 압도당했다. 저 밖에 더 높은 힘, 더 높은 지성이 있다. 마치 저의 어깨를 두드리는 것 같았다"라고 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자마자 마약과 알코올 남용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그는 24세에 재활 치료를 받은 후 하나님을 따르기로 했다. 강혜진 기자

www.marh.com

의뢰인의 원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것을 파악하는 것이 변호의 핵심이라는 것을 늘 염두하고 있습니다. 참된 변호란 의뢰인의 처한 상황과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송은 때로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이해상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근절되어야 합니다.

**辯護**  
변호

마변호사그룹의 오랜 경험이 물론 실력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문제의 핵심 이슈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용되는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은 물론,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 지혜롭고 때론 창의력을 갖춘 것이 마변호사그룹의 진정한 실력이라 하겠습니다. 이 실력은 의뢰인을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무기입니다.

**實力**  
실력

가장 큰 정성은 의뢰인의 문제를 내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변호사그룹은 모든 일을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뢰인과 오랜기간 귀한 관계를 이어온 것도, 정성 어린 마음의 결과라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精誠**  
정성

마변호사그룹에서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물론 별은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의뢰인과의 대화를 중요시 생각합니다. 전화, 이메일, 미팅을 통해 어느때든지 마변호사그룹은 의뢰인과의 대화 창구를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責任**  
책임

변호사의 진정한 기쁨과 긍지는 의뢰인으로부터 얻는 신뢰입니다. 한분 한분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기에 신뢰는 저희 마변호사그룹의 믿거름이요 최종 목표입니다. 진정한 신뢰 없이 친분이 없는 것 같고 있습니다.

**信賴**  
신뢰



**마동환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 Attorneys**  
David Marh  
Simon Langer  
Frederick Alschuler  
Gordon Turner  
Nicholas Valmes  
Walter Roberts  
Douglas Villinger

### 이민법

낯선 땅에서 안정된 신분과 안정된 삶의 정착의 중요성은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마변호사그룹에서는 그러한 중요성을 심본 새겨서 가족의 일과 같이 모든 신분변경 및 이민케이스를 꼼꼼함과, 정성과, 넓은 시야를 갖고 대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의뢰인들께 만족한 결과를 드린 것이 저희 마변호사그룹의 기쁨이요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 상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 (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기간 그 실력을 인정 받아 온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분의 법적문제에 의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휼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 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 합니다. 지피지기가 이루어 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 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상담은 꼭 변호사와 하십시오!**  
모든 상담은 절대 비밀을 보장합니다.  
무료상담 / 이메일 예약 환영



# 존 맥아더 목사 “종교 자유는 우상숭배 허용”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미국 문화 가치 중 핵심 요소로서 종교 자유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한 대형교회 목사는 “우상숭배를 허용하기 때문에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발언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4일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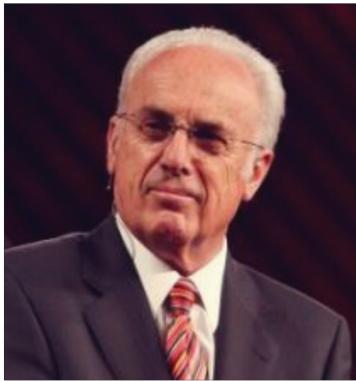
이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 담임인 존 맥아더 목사는 진행 중인 소송과 당국의 위협으로 연기된 ‘슈퍼드 컨퍼런스’를 대체한 ‘State of the Church’에서 복음주의자들에게 “종교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 비기독교 단체들과 제휴 관계 형성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이유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맥아더 목사는 주장했다.

그는 “복음은 죄인을 불쾌하게 하고 죄인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완전히 깨닫게 함으로써 죄인이 누리던 위안과 만족을 깨뜨리려고 한다. 복음주의자들은 베드르처럼 되었다. 그들은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탄과의 동맹을 찾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몇 주 전 우리 교인들에게 종교 자유에 대해 정말로 걱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상 숭배를 위해 싸우지 않기 때문에 종교 자유를 위해서도 싸우지 않을 것이다. 마귀가 가능한 한 많은 거짓 종교를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왜 내가 싸워야 하는가?”라고 질문했다.

그러면서 “종교 자유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계속해서 죄인들로부터 적대감의 표적이 되어왔다”라며 “기독교는 종교 자유가 있든 없든 발전한다. 그리고 모든 거짓을 믿을 수 있는 종교 자유는 항상 있을 것이다. 모든 거짓 종교는 세상에서 작동하는 어둠의 왕국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허용될 것이다. 그리고 종교 자유의 이름이 가장 넓은 의미에서 무엇이든 간에, 기독교인들은 언제나 종교 자유가 있음에도 죄인들이 적대감을 표출하는 표적이 된다”라고 말했다.

맥아더 목사는 “사도들은 아무 도움없이 세상을 뒤집었다. 사회적 행동은 없었으며 동맹도 없었다. 악한 어둠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미워하고



존 맥아더 목사.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든 것을 사랑한다. 어둠의 왕국은 결코 빛의 친구가 아니다”라며 “지배자들은 하나님의 진리조차 거짓으로 바꿨다.... 그들은 거짓의 아버지 거짓말쟁이인 사탄의 통치 아래 기능한다. 우리는 그러한 자와 동맹을 맺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맥아더 목사는 에베소서 5장 5-8절(“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게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을 포함해 교회의 권한을 설명하는 몇가지 구절을 인용했다.

맥아더 목사는 에베소서 5장 7절을 반복하며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강조했다.

한편, 종교 자유를 보호하는 비영리 법률 단체인 종교 자유를 위한 베크트 펀드(Becket Fund for Religious Freedom)가 2019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표현된 견해가 ‘차별적’이라고 간주되더라도 대다수의 미국인은 종교 자유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P는 전했다.

이미경 기자

# 노스캐롤라이나 교회, 전염병 대비해 ‘야외 원형극장’ 건설 추진



노스캐롤라이나 개스톤 카운티 시티교회가 건설을 추진 중인 야외예배당 조감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교회가 올 여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대비해 야외 원형극장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5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개스톤 카운티에 위치한 시티 처치는 75에이커에 달하는 교회 부지 안에 원형 극장을 추가해, 실내 예배 중단에 대비할 계획이다.

디키 스파르고(Dickie Spargo) 담임목사는 지난 주일 페이스북 생중계를 통해 “이 바이러스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이 바이러스는 아마 아무 데도 가지 않고 COVID-32, COVID-45가 있을 것”이라며 “야외 예배를 드리지”고 제안했다.

지역 매체인 WCNC-TV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엔지니어링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공사비로 50만 달러를 모금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교회의 페이스북에는 가상 이미지로 만든 극장의 사진 2장이 공개되어 있으며, 무대 앞으로 10개의 원형 좌석 열들이 있다.

그는 이 시설이 원형극장이 없는 개스톤 카운티의 학교나 병원을 위한 지역사회 시설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스파르고는 “이 땅은 우리 소유가 아니기에, 우리 지역 사회에 사용되길 바란다.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건물은 우



시티교회 디키 스파르고(Dickie Spargo) 담임목사

리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는 올 여름, 우리가 갖게 될 기회에 대해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또 원형극장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진 이후에도, 실내보다 야외 예배를 선호하는 교인들을 위해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두 곳의 캠퍼스(New Hope, Fairview)를 운영 중인 이 교회는 지난해 3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자 빠르게 온라인 서비스로 전환한 지역 교회들 중 하나였다. 스파르고는 당시 지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은, 이것(팬데믹)에 대해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를 선택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해낼 것이니 당황하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나 걱정 속에 살지 말라고 말씀하신다”고 권면했다.

강연숙 기자

# 교회혁신교회

##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심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암회침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 245-6616

주일예배 오전 11:0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평신도 리더십훈련 매주 수 오후 7:00  
금요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00  
토요일예배 오전 9:00

**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내세대에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20(월, 금)  
3부예배(저세대에) 오전 11:30 오전 6:20(토)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종교지도요일(수) 오후 7:30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2만2천여명까지, 이민가정을 지원하며, 선교영광을 증증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dson 교차)  
T. (213) 386-2233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 - 토)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h. #412 (6가와 카탈리나), LA, CA 90020  
T. (213) 909-6473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3:3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교대  
1340 E 6th St, #419, LA, CA 90021  
T. (310) 905-2228 / newchurchdtda.com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합세회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 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토)  
3부예배 오후 2:00 유초등부 오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0:30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그리스도와 성도와 이웃과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 북동쪽 1블럭)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9:00 성인 EOM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11:00 한이청년예배 오후 12:30  
찬양예배 주일오후 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치유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 11:00

**차성구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 되어 십자가 복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주일 1부예배(분당)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분당)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분당) 저녁 8:30 새벽기도회(월, 금) 오전 5:30  
리츠예배(델리엔드) (소세베일) 오전 11:00

**정정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87-1700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라티노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30(화-금)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흠뻑 소.신.초 정신의 흠뻑,바른교회관의 흠뻑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 예배 오전 10:30  
2부 예배 오후 1:30  
성경 공부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 금) 신도모내기 만민부 지역 유망한 한인교회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영혼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502-9999 / www.smkc.us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 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월)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 LA 동부,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예배 오전 5:30(월, 금)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윌연합교회**  
여호와를 찾을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말하기를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es.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월, 토) 오전 6: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냄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 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토)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월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조용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안 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성경예배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 6:30 (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 / inlandchurch.org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교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이훈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조준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수요일 오후 7:30 오전 6:30(토)  
 중국어 성경공부 오후 7:30(월) 汉语圣经班: 周二晚上七点半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714)461-6412

**송재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경예배 오후 7:00(금)  
 중보기도일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 인도네시아, 경찰청장에 복음주의 기독교인 임명...50년만에 처음



인도네시아 지도 ©위키미디어

인도네시아가 50년 만에 처음으로, 무슬림이 아닌 복음주의 개신교 기독교인을 새로운 경찰청장에 임명했다.

카톨릭아시아뉴스(UCA News)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리스요 시깃 프라보우(Listyo Sigit Prabowo)는 지난 1월27일 전 임자인 이담 아지스의 뒤를 이어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개신교 신자인 리스요(52)는 50여 년 만에 인도네시아의 공직을 맡게 된 첫 기독교인이며, 1945년 8월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령 동인도에서 독립을 선언한 이후, 세 번째로 탄생한 공직자이다.

리스요는 이슬람 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의 하원인 인민대표자회의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유일한 후보다.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가까운 협력자(close ally)"로 알려진 리스요는 임명식에서 "다양성의 증진과 편협함, 급진주의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종교의 자유를 지지하며 "믿을 수 있는 투명한 경찰을 만들고, 국가의 모든 시민들의 보호자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리스요는 지난달 온라인에서 명예훼손 및 증오 표현을 규제하는 인터넷법을 시행할 때 경찰에 더 많은 재량권(discretion)을 부여하도록 요청했다.

이는 인도네시아 최고 이슬람 성직기구인 '울레마 평의회' 지도자인 무히딘 주나이디(Muhyiddin Junaidi)가 신임 경찰청

장이 무슬림이어야 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주나이디는 "비록 인도네시아는 세속국가이지만, 경찰의 지도자가 이슬람 출신배경을 갖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어느 나라의 지도자라도 대다수 국민의 종교와 같은 종교를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인도네시아 교회 공동체(CCI/PGI)는 그의 임명에 대해 "중요한 것은 그의 과거 업적과 성공, 그리고 민주주의자로서 자유롭지만 질서정연한 인도네시아 미래에 대한 비전"이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 단체는 또 인도네시아 운동당 총재이자 국방부장관인 프라보우 수비안토(Prabowo Subianto)가 표방해 온 '소수 종교 단체에 대한 권의 보호'가 여전히 가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인도네시아 평신도 주교위원회의 폴루스 크리스찬 시스완토코(Paulus Christian Siswantoko)사무총장은 그의 임명에 대해 "대통령이 종교적 소수 민족 출신을 새 수장에 임명함으로써, 인도네시아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동등한 권리가 있음을 보여줬다"며 "이것은 국가가 종교나 소수 또는 다수가 아닌, 성과와 실적, 비전에 따라 지도자를 선택한다는 단언"이라고 밝혔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 인구가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오픈도어즈 2021년 세계박해감시목록 기준, 세계에서 47번째로 기독교 박해가 심한 나라로 꼽힌다.

김유진 기자

## 벨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7:00 JCO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9:00 오전 10:15, 오후 12:40 (교육관)  
 주일 3부 오전 11:00 EM 오전 11:15 (교육관)  
 (Blended Service)  
 사랑부 오전 8:45 (교육관)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동이요 내 길에 빛이오니이다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이정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중교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헌악년 오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 F. (818)882-9777 www.churchmann.com

**방수민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중교등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하는 교회 친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 F. (818) 845-1683 / bkchurch.org

**윤대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오전 9:30 사랑의 빛 주일오전 11:30  
 주일 3부 오전 11:30 금요일성경회 오후 7:45  
 젊은이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www.lolmc.org

**오명찬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성경집회 오후 7:30 EM예배 (2부)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한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곽덕근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최 혁 담임목사**  
 벨리제물 MP제물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333 S. Garfield Ave., Monterey Park, CA 91754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교육부 후원예배  
 금요성경집회 오전 7:30 금요성경예배 오전 9:30 (수요주중예배: 오후 6시)  
 새벽기도회 오전 5:30 / 토 오전 6:00 중교등부 오전 11시 (금요주중예배: 오후 7:30)  
 1954 Hiram St., Northridge, CA 91326 EM: 오후 1:30  
 T. (818)936-5887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민중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불려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 사우스베이, 토렌스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교등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신태섭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유중등부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중교등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치부 오전 11: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가디나 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310)217-9191 www.gpclove.com

**이석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EM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45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나성금란교회**  
 기쁘게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교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EM 1부 9:30/ 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310) 719-2244 / dkpc.org

**서보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중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강신권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김경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이동진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EM예배 오전 11:00 오전 5:40(토)

**성화장로교회**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믿어, 함께 걷는 믿음-사랑-소망 공동체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310) 515-1191 www.sunghwachurch.org

**박성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EM예배 오전 10:45 금요성경대담회 금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처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17910 Prair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이상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90247  
 T. (714) 296-6783 www.sbhvision.org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530-4040 / F.(310)530-8400 / cornerstonetm.com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1부 오전 9:30/2부 오전 11:0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 “나이지리아, 기독교인 몸값 노린 납치가 일종의 산업 돼”



나이지리아 현지 기독교인들이 예배드리고 있다. ©Open Doors

나이지리아에서 보고하람(Boko Haram) 테러범들에 납치된 기독교 목회자가 처형까지 불과 몇 시간을 앞두고 석방됐다고 현지 매체들이 최근 보도했다.

온라인 매체인 '프리미엄 타임스'에 따르면, 작년 12월 24일, 보르노 주의 치북 지방에서 납치된 볼루스 이쿠라(Bulurs Yikura) 목사가 지난 3일 저녁에 석방됐다.

세계에서 가장 과격해진 극단주의 단체 중 하나인 보고하람은 지난달 24일, 이쿠라 목사가 나이지리아 정부와 기독교 협회에 자신을 구출해 달라고 호소하는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나이지리아 언론 매체인 '훔앵글(HumAngle)'이 입수한 당시 영상에는 이쿠라 목사가 무릎을 꿇은 가운데, 복면을 쓴 칼을 든 납치가 그의 뒤에 서 있는 장면이 등장한다.

나이지리아형제교회(EYN) 소속 목사인 그는 보고하람이 작년 12월부터 2월까지 공개한 총 3개의 비디오에 모습이 공개됐다.

프리미엄 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주부터 이쿠라 목사의 가족과 EYN교회가 그의 석방을 협상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세이프 더 피시큐티드 크리스천'의 전무이사인 데드 로게센(Dede Laugesen)은 4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그의 석방을 축하하고 잠파라의 아이들도 석방돼 감사하다"면서 "하지만 2019년 이후 나이지리아에서 만연해 온 '몸값을 노린 납치'라는 전염병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려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나이지리아 북부 잠파라 주 장계예에서는 여중생 317명이 무장괴한에 의해 납치되었다가 지난 3일에 279명이 풀려났다.

그러나 현지 보도에 따르면, 극단주의자들은 여중생들을 석방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잠파라 주의 마을에 불을 질렀고 60여명을 추가로 납치한 것으로 전해진다.

라우게센은 몸값을 노린 납치가 나이지리아 극단주의자들과 테러범들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일종의 산업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 현상에 대해 "나이지리아에 점점 더 뿌리내리고 있는 불행한 현실이며, 특히 정부가 연루될 경우에는 해결이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로게센은 국제사회가 대규모 폭력 사태로 번지기 전에, 나이지리아 정부가 책임을 묻으며 압박해 줄 것을 권고했다.

그는 "나이지리아가 본질적으로 칼리프(caliphate) 국가를 세우려는 이슬람 지하드의 새로운 본부"라며 "나이지리아의 기독교인들은 정부가 나이지리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게 계속해서 면책 특권을 주는 데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나이지리아는 세계테러리즘(GTI) 지수에서 3번째로 심각한 국가로 꼽히고 있으며, 2001년부터 2019년까지 22,000명 이상의 테러 관련 사망자가 발생했다. 특히 오픈도어즈USA에 따르면, 나이지리아는 기독교인의 사망자 수가 다른 박해국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이미경 기자

# 전두환 차남 전재용 씨, 백석대 신대원 진학 및 우리들교회 전도사 부임



전재용 씨가 지난 5일 극동방송에 출연한 모습. ©유튜브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인 전재용(57) 씨가 백석대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으며, 최근 판교 우리들교회(담임 김양재 목사)에 전도사로 부임한 사실이 언론들을 통해 공개됐다.

전재용 씨는 2021학년도 백석대 신학대학원 일반전형 목회학석사 과정에 합격했다. 전 씨는 지난해 2월 출소 후 아내와 우리들교회 성도로 등록해 서울 강남구 휘문채플에 출석했다고 한다.

우리들교회는 주일인 7일 '교회소식'을 통해 전재용 씨가 전도사로 부임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전재용 씨는 아내 박상아 씨와 지난 5일 극동방송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에 출연해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그는 "목회자가 되겠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는데, 말씀을 들음으로써 세상에 좀 덜 떠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신학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밝혔다.

전 씨는 "지난 2016년 7월 1일 아침 출근하려고 주차장에 내려갔다 잡혀서 교도소까지 갔다"며 "교도소에서 2년 8개월을 보냈다. 처음 가서 방에 앉아 창살 밖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찬송가 소리가 들렸다"고 말했다.

그는 "교도소 내 종교방에 있던 분이 부른 것이었다. 그분이 노래를 너무 못 불렀는데도 눈물이 났다"며 "그때부터 찬양, 이대웅 기자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목회자의 길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재용 씨는 "교도소에 있는 동안 교도소 내 예배를 도왔고, 아내가 보내준 성경과 김양재 목사의 저서를 읽으며 지냈다"고 말했다.

전 씨는 "신학대학원에 가기 전에 부모님께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았다. 아버지는 차대라서 양치질하고도 기억을 못 하는 상태"라며 "부모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더라. 아버지는 '내가 목사님이 되면 내가 섬기는 교회를 출석하겠다'고 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목사가) 꼭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과거 인기 배우였던 아내 박상아 씨는 "처음에는 목회자가 되기 위한 남편의 신학 공부를 절대 반대했다. 누가 봐도 죄인인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숨기고 싶은 부분인데, 사역까지 한다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너무 가리는 것 같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씨는 "남편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 이유로 굉장히 싸우고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 생각은 저희 생각과 다른 것 같다"고 했다.

전재용 씨는 지난 2006년 12월 경기 오산시 임야 매각 과정에서 매각 대금이 445억원인데도 325억원인 것처럼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27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 원이 확정됐다.

전 씨는 벌금 납부기한인 2016년 6월 30일까지 미납해 다음날인 7월 1일 오전 노역장에 유치됐다가 지난해 2월 출소했다. 벌금 대신 노역을 하게 된 것으로, 하루에 약 400만원 풀이라 당시 '황제 노역'이란 비판을 받았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참회를 하려면 부모에게서 받은 재산부터 처분해 미납 추징금부터 해결하라", "재산 은닉과 탈세가 목적", "아버지부터 회개시키라" 등의 비판을 주로 하고 있다. "인간은 다 죄투성이니 좋은 목회자가 되어 많은 영혼들을 살려달라"는 긍정적인 댓글도 일부 있었다. 이대웅 기자

# 한국 선교사 168개국 2만 2,259명, 전년대비 3개국 5,780명 감소



오픈도어선교회가 발표한 박해 국가 50위. 아시아와 아프리카 10/40창에 집중돼 있다.

2020년 한국 선교사 현황은 168개국 2만 2,259명으로, 전년대비 3개국 5,780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말 현재 한국 선교사는 171개국 2만 8,039명이었다. 코로나19로 해외 선교 사역이 급격히 위축된 것에 비하면, 감소 수치가 크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을 제외한 상위 선교 10개국은 A권역(1,943명), 미국(1,657명), 필리핀(1,333명), 일본(1,299명), 태국(951명), 동남아 I국(859명), 동남아 C국(808명), 서남아 I국(630명), 동남아 V국(552명), 동남아 M국(482명) 순으로 집계됐다.

대륙별로는 아시아 지역이 1만 3,659명(61.4%)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고, 북미가 2,076명(9.3%), 유럽 1,917명(8.6%), 아프리카 1,887명(8.5%), 중남미 1,072명(4.8%), 중동 974명(4.4%), 남태평양 674명(3.0%)이었다.

2년 이상 장기 선교사 비율은 남성 47.3%, 여성 52.7%였고, 부부가 89.4%, 독신이 10.6%였다. 독신 선교사 비율은 남성 24.13%, 여성 75.87%였다.

연령 분포는 50대가 39.65%(8,826명)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30.26%(6,736명), 60대가 19.13%(4,258명), 30대가 7.46%(1,659명), 70세 이상이 2.69%(598명), 29세 이하가 0.82%(182명) 순이었다. 선교사들의 나이 분포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륙별 분포는 아시아 22%, 아프리카 9%, 북미 7%, 중남미 3%, 중동 2%, 유럽 2%, 기타 55%였다.

선교사 자녀(MK)는 응답 기준(137 단체) 1만 6,265명이었으며, 전체 선교사 기준으로 2만 286명으로 추정된다.

연령에 따른 분류로는 취학전 아동 9.1%, 초등학생 16.4%, 중고등학생 19.1%, 대학생 23.1%, 그의 취업 연령은 32.4%였다.

이번 통계는 KWMA(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주관하고 KRIM(한국선교연구원)이 지난달 말 조사 및 발표한 '2020 한국 선교현황'에 따른 것이다.

KWMA와 KRIM은 매년 별도로 선교사 현황을 조사해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두 기관은 지난 2019년 협약을 체결하고 한국 선교 발전을 위해 이를 단일화하기로 했으며, 이번 현황 발표가 그 첫 결과물이다.

조사 대상은 타문화권 선교에 2년 이상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한국인으로, 국내에 분명한 파송단체 혹은 후원 주체가 있고, 모금을 하고 있는 전임 사역자로 한정했다.

국내 본부의 장기 사역자, 행정 사역자, 단체 소속의 관리감독을 받는 자비량 선교사도 인정했으며, 선교사 부부는 2명으로 계산했다.

이대웅 기자

**김우준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KM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5:30

**토레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org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 O.C., 엘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30  
 새벽예배(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정예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예배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설기족 예배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E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저녁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

**이 일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복수 생으로 활로 살려 생애공평케 하니 그 생애 복을 받은 자는 복이로다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cfc.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성령 새 생명을 함께 달려가는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9:0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수요일예배 오후 8:00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한국학교 주일 오후 1:30

**왕상윤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주일 오전 6:00

**최순길 담임목사**

**LA 임마누엘교회**

562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0  
 T. (714)743-0141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 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 1부 예배 : 오전 9:45 목요일예배 : 오후 7시  
 주일 2부 예배 : 오전 11:00 새벽기도 : 오전 6:00(화-금)  
 유년부예배 : 주일 오전 11:00 설모임 : 매달 둘째 및 넷째 금요일  
 중·고등부예배 : 주일 오전 11:00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Everlove Baptist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46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 (714) 525-0191 / www.ebsoca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30(화-금)

**김일권 담임목사**

**다 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988-3321, (562)896-1665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Youth / College 주일 오전 11:00

**안성복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어린이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30(화-금)

**김일권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말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 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오전 11:00  
 English Ministry 오전 11:30 Hispanic Service 오전 9: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정기정 담임목사**

**샘물교회**  
 풍성한신 하나님을 누리는 공동체

15151 Cordova Rd, La Mirada, CA 90638  
 T. (714)749-7770 www.saemmoool.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9:15, 11:30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박신용 담임목사**

**얼바인은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청년부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FAME예배 오전 11:30(청년 영어)

**이서 담임목사**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매월 마지막 금요일)  
 3부찬양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2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영어) 오전 10:00  
 3부예배 오후 11:45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신원규 담임목사**

**좋은마을교회**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T. (714)646-9259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 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문/사/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2021학년도 봄학기

##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수있습니다.

2021년 3월 22일개강

###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 2021 봄학기 강의시간표

Day	Time	Class	Professor
Mon	7:30 PM - 9:30 PM	초대교회사	Daniel Min
Tue	7:30 PM - 9:30 PM	데살로니가후서,고린도전서	James Lee
Wed	8:30 PM - 10:30 PM	영성 신학	Elijah Kim
Thu	7:30 PM - 9:30 PM	선교신학2	David Lee
Fri	8:30 PM - 10:30 PM	기독교상담학	Jong Y Kim
Sat	7:30 PM - 9:30 PM	시편	Timothy Song

\*청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각 과목당 \$100씩으로 청강하실수있습니다.

신학학사과정 (B.Th)

목회학석사과정 (M.Div)

목회학박사,교육학박사,신학박사,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

상담전화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213-272-6031

## 십자가 위에 못 박힌 삶



송재호 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길은 오직 죽음 외에는 자아를 처리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원했으며 우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으로 삶을 살아가길 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을 드리려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아”란 죄와 욕망의 뿌리라는 점입니다. 자아가 죽지 않으면 결코 “죄”와 “욕망”은 사라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삶에서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자아와의 싸움을 통해 십자가의 삶을 다짐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면세계에 자아가 살아 있을 때에는 결코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아를 포기하고 우리의 전 생애를 주님께 맡길 때 비로써 우리 삶의 중심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 그의 거룩한 뜻과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매일 죽으면서 새롭게 태어나는 신비한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 아래서 깨어지고 부어진 경험과 흔적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면에 아직도 살아 꿈틀대는 자아의 죽음이 없는 신앙의 모습은 결코 그리스도가 모든 가치의 중심이 아니라 육적 소욕을 채우는 수단과 방편으로 이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덴마크의 철학자인 ‘쇠렌 키에르케고르’는 “하나님은 무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다. 하나님은 그가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먼저 무로 만드신다.”고 하였고, 철저히 자기를 비하시켜 목숨을 걸고 자기부정의 삶을 살려고 애썼던 미국의 선교사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스스로 죽지 못한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하고 멸망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은 결코 쉽지 않고 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이론이 아니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그 길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걷게 되는 길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 이와 같은 길을 묵묵히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 고린도전서 2장 2절

어떤 글을 보니까 “기독교의 심장은 성경이고, 성경의 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십자가이다.”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에 의미를 우리가 가만해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 믿는 모두에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도의 삶은 십자가의 영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만일 성도의 삶에 십자가가 빠지게 된다면 그 삶은 마치 엔진 없는 자동차 같고 그리고 책이 없는 도서관 같은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십자가를 성경이 왜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지를 배우게 되는데 그 이유는 십자가는 신앙의 본질이며, 십자가는 신앙의 처음이요 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사랑하게 하신 마음도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성도된 우리는 철저히 십자가위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올려놓고 못 박기 위하여 힘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도 그 이름의 뜻이 ‘작은 자’였지만 자신도 철저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낮아지기를 그리고 자신을 부정하기를 힘쓰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독교사에 위대한

## 여호와 살롬, 평강이 되시는 하나님



신용환 목사  
나성ham교회

와 살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말해주는 사사기에 반복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가 이러한 살롬이 사라지고 혼돈과 무질서가 가득한 이 시대가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드온이 살던 시대도 이 살롬이 사라진 시대였습니다.(삿 6:1-2)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예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깨우쳐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웃 부족인 미디안 족속을 통해서 고통을 더하게 하십니다. 미디안 족속의 이스라엘의 침략하여 백성들이 씨를 뿌리고 있는 밭들을 초도화시키고 한해 농사를 짓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7년동안이나 괴롭게 하고 있었습니다.(삿 6:6) 바로 그때는 살롬이 사라진 시대, 혼돈스러운 불안정의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 시대에 기드온에게 여호와와 사자는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사 기드온과 300용사를 기억하지만 실제로 기드온은 용감한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약하고 평범한 농사꾼이었습니다. 여호와와 사자가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다(힘센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또 기드온은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기드온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나약하고 연약한 기드온에게 기드온에게 여호와와 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안심하라(너는 살롬하라, 삿 6:23)>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는 살롬을 명령하십니다. 기드온은 자신을 큰 용사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대면하고서 자신이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그는 그가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을 <여호와 살롬>으로 고백합니다. 기드온은 이제 <여호와 살롬, 살롬의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고 예배합니다.> 살롬의 하나님을 경험한 기드온은 하나님께 끊임 받는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살롬의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불안할 때 우리는 살롬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모든 것이 두렵고 의심이 생기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여호와 살롬을 고백해야 합니다.

살롬을 주실수 있는 여호와 살롬은 하나님이 완전한 평안 가운데 계신분이며 모든 살롬의 원천이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름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비밀입니다. 진실로 그의 이름은 신비요, 비밀이요, 영광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하나님의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몇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잭 R. 테일러는 “하나님의 속성은 그의 이름들을 통해 나타난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드러내신다. 우리는 그의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은 각 이름의 특정한 속성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게 될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일하시는 이름은 바로 <여호와 살롬>입니다. 여기서 살롬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 보시고 간혹 사용하시는 단어입니다. <살롬: 평화 또는 평강, 평안>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살롬: 여호와와는 평강(화)이시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약 170번 정도 사용되고 있는데, 인간의 물질적인 면에서는 <복지와 건강>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동사로 쓰일 때는 <서원을 갠다. 완성하다. 성취하다. 완전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특히 이 단어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화목케하다, 회복하다(렘 29:11)>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 살롬은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의 상황이 아주 불안하고, 아주 불안정적이고,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을때였습니다. 이 여호와 살롬이라는 이름은 출애굽 이후 가나안 정착이후에 가나안 정복에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갈렙이 죽은 이후에 사사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특별히 5번째 사사인 기드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

### 정성욱 교수의 조직신학 에세이

## 아담의 상태와 부활인의 상태



덴버신학대학원 정성욱 교수

지난 호에 이어서 조직신학 인간론의 중요 주제들을 목상해 보고자 한다. 이번 주에 다룰 주제는 최초의 인간 (the first human being) 또는 본래의 인간 (original human being)인 아담의 상태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마지막 인간 (the last human being) 즉 부활인 (resurrected human being)의 상태를 비교해 보는 것이다.

창세기 1장 26-28절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선포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의 상태는 놀라운 상태였다. 특별히 타락하기 전 아담의 모습은 영광스러웠다. 그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 전체가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내고, 반영하는 것이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리라는 하나님나라의 복을 받았다. 즉 아담이 하나님의 대

리 통치자 (vice-regent)로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에덴동산에서 이루고 이어서 전 우주로 확장해 가라는 복과 위임을 받았다.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했고,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완전했으며, 사람과 피조물의 관계도 온전했다. 즉 완전한 조화와 평화의 상태 즉 살롬의 상태를 이루고 있었다. 에덴동산은 생명력이 충만한 땅이었고,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찬 공간이었다. 죄와 허물이 들어오기 이전이었기에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놀라운 상태였다. 또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지성과 감성과도덕성을 가진 거룩한 존재였다.

그렇다고 해서 아담과 하와의 상태가 절대적인 완전 (absolute perfection)의 상태였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교회 역사 2천년 동안 다양한 신학자들이 매우 다른 답변들을 제시해 왔다. 필자는 아담과 하와의 원래 상태가 절대적인 완전의 상태라기 보다는 상대적 완전 (relative perfection)이라고 보는 견해에 동의한다. 그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절대적인 불변의 상태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임시적 (provisional)이고 가변적 (changeable/mutable)인 상태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자유의지를 오용함으로써 그들이 본래적으로 누리고 있었던 무죄상태 (the state of innocence)에서 타락할 가능성을 가진 존재였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고 그들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반역하여 범죄하고 타락하면서 에덴의 놀라운 복들을 모두 상실하게 되었다. 살롬과 평화와 자유와 기쁨을 상실하게 되었고, 죄인을 생육, 번성케 하는 저주에 처하게 되었고, 에덴동산의 놀라운 풍요로움을 상실하고 그 땅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었으며,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상실하게 되었고, 마귀의 종과 노예가 되었다. 자연만물과의 관계도 깨어졌으며, 만물은 가시와 영경귀를 내고, 허무함에 굴복하게 되었다. 사망이 들어오고, 저주와 비참이 지배적인 분위기가 되었고, 영원한 사망의 선고아래서 절망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

이런 저주와 비참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율법과 뜻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자신을 대속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와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하셨으며, 장사 된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개인의 주님과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써 말미암아 영원한 죄사함, 거듭남/중생, 성령의 내주와 인치심, 그리스도와와의 연합과 교제, 칭의, 양자됨, 성화, 견인, 영화라는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

놀라운 구원의 삶을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순간 우리 영혼은 영화되어 낙원으로 들어가며 그곳에서 우리 몸의 부활을 기다리게 된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부활하게 되는데 그 부활의 상태는 처음 창조된 아담의 상태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상태이다. 첫째, 우리가 부활하면 우리 몸은 하늘에 속한 몸이 된다. 즉 영원을 입은 몸 (the body clothed with eternity)이 된다. 아담의 몸은 여전히 땅에 속한 몸이었다. 영원한 몸이 아니었다. 죽을 수 없는 몸, 썩을 수 없는 몸이 아니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우리 몸은 더 이상 죽을 수 없는 몸, 썩을 수 없는 몸이 된다. 둘째, 우리가 부활하면 우리 몸은 시간간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아담의 몸은 여전히 시간간의 제한을 받는 몸이었다. 그러나 부활 후 우리의 몸은 시간간을 초월한 영원한 몸이 된다.

셋째, 아담과 하와는 자유를 누렸지만 범죄하여 타락할 수 있는 수 있는 상대적 자유만을 누리고 있었다. 부활 후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선택할 수 없는, 타락할 수 없는 절대적 자유를 누리게 된다. 넷째, 부활 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우리의 본질이 신성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신적 거룩과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 다섯째, 부활 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통과 사귀기를 누리게 된다. 피조물이 창조주와 누릴 수 있는 최대 가까운 교제,

그리고 최대 영광스러운 교통의 삶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영생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무한한 풍요로움을 우리는 향유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태로 초청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타락을 허용하시고, 마침내 구원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처음 창조시의 아담의 상태도 너무나 놀라운 상태였지만, 타락과 구원을 통과하여 부활한 우리의 상태는 처음 아담의 상태보다 훨씬 더 진보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보스턴 (Thomas Boston, 1676-1732)은 그의 주저 [인간 본성의 4중상태] (Human Nature in Its Fourfold State)에서 아담과 하와의 상태를 무죄상태 (the state of innocence)라고 묘사하고, 부활인의 상태를 영원상태 (the state of eternity)라고 불렀다. 보스턴 역시 우리가 부활의 상태에서 누리는 영원한 인간의 상태가 무죄상태였던 아담과 하와의 상태보다 훨씬 더 진보한 상태임을 설득력 있게 논증한 바 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굳게 붙들고,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주의 자녀, 주의 제자들의 삶을 살아내야 할 것이다. 물론 그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 주님과 동행함으로써만 가능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CD Printing**  
 CD전문 주님미디어입니다.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컨텐츠 제작  
 전도용 볼티슈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Han's piano tuning**  
 피아노조율  
**James Han**  
 Sale Used Piano  
 Professional Tuning  
 Repair & Moving  
 godfist91@gmail.com  
 Tel : 562-822-6778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 미용인도 OK)  
 회비 : 월 \$10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이동희 원장

**리프팅/ 지방분해 최신펙 장비 도입**  
 ★ 리프팅 라인 ★ 부분 지방분해 라인  
 [4회 \$999] [8회 \$999]

탈모 치질 감작성 당뇨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7~25lbs**

손가락 발가락 마디관절 류마티스 관절통증 퇴행성 관절통증 손톱 발톱 질환

“만성두통, 양쪽 어깨 통증, 뒷목 땀기고 귀울림(이명), 어지럽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메스꺼리고, 꿈이 많고 깊은 잠을 못 자고, 한쪽 얼굴이 감각이 없거나 눈과 입 주위에 경련, 손과 팔이 저릿저릿하고 시큰거리는 마비증, 턱관절 장애 T.M.J.”

교통사고 전문병원

배배는 숙면제거약 먹으면서 체중 줄고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50 한달분**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한의원  
**영선한의원**  
 영업시간 월~금, 10시~5시 토 10시~2시  
**Tel. 213 380 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가와 아드모어)



장재효 목사의 은혜의 샘

# 강도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

누가복음 10:25-37



서울성인교회 목사 장재효

어떤 율법사가 상당히 교만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시험해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하고 물었습니다.

그는 영생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존경하거나 그 가르침을 기대해서 영생의 도리를 깨닫기 위해 던진 질문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율법을 가르치는 자에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고 하시니 그는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고 답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6:5이하에 있는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 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신다고 믿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며, 삶의 의욕과 목적을 하나님께 맞추어지게 되어있었습니다.

마음은 인간에게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모든 일이 마음먹기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진정 믿어지는 사람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대로 믿어지며 행동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목숨은 영적인 목숨과 육적인 목숨이 있는데, 영적인 목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는 레위기 17:11의 말씀처럼 육적인 목숨은 피로써 생명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유지시켜서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12부터 보면 시장하셨던 예수님은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셨으나 무화과 때가 아니어서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나무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가 예수님이시며, 열매를 찾으셨으나 잎사귀만 무성했기 때문입니다. 잎사귀는 육체의 세상조건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 무화과는 생존의 의미가 없으니 생기기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튿날 제자들은 그곳을 지나다가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내가 살아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리시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2:6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다한다는 것은 죽을 각오로 섬김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주권자인 하나님께서 그를 더욱 강건하고 운택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힘을 다한다는 것은 그저 한 번 힘을 쓰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힘 있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생기를 공급하십니다. 창세기 2:7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生靈)이 된지라”했습니다. 사람의 육체 속에는 기(氣)와 혈(血) 두 가지가 생명체로 활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기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는 세상 조건으로부터 얻어진 것입니다. 음식을 먹고 보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힘을 다한다는 말은 이 두 가지, 기와 혈에 공급되는 힘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뜻이라는 것은 마음에 작정한 계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고 구원을 얻었고 하늘소망을 목적으로 천국 갈 믿음을 가꾸며 사는 사람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더 잘 섬겨드리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은 영적인 성과, 많은 영혼을 지옥 길에서 하늘 나라로 이끌 수 있는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만족함을 드릴 수 있을 때 내 육체의 사는 목적을 그것에 두어야 합니다. 생활로 본을 보이며 믿음의 봉사와 자기희생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헌신적 봉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곧 뜻을 다하는 것입니다.

율법사가 예수님을 두고 시험해 보고자 했던 것은 지금껏 율법을 다 지켜 행했고 그것을 옳게 여겨주길 바라는 마음,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자신의 의식화된 생각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은 그들의 의식과는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섬기기를 힘쓸 때 그 은혜를 따라 구속해주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사는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율법을 가르치고 강조하는 사람으로 이 율법을 통하여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열심히 애써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옳게 보여지길 원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가파른 비탈길입니다. 예루살렘은 지중해 해수면에서 762M나 높은 고지에 있고 여리고는 해저면입니다. 지중해 수면보다 250M가 더 낮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약 35KM입니다. 이 길을 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나 그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만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았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강도만난 자를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 뒤에 레위인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이 레위인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책을 맡은 자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 그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셨던 자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못본체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개, 돼지처럼 취급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쌍히 여기며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귀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았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다음 날 길을 떠나며 주막주인에게 돈을 주며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돌보아 달라고 당부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만난 자에게 책망하듯 질문하지 않았고 그저 그 고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진정 애타한 보살핌이며 참다운 사랑실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화를 드시고는 율법사에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물으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율법사의 입에서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입니다”는 소리가 나오도록 만드셨습니다.

현대 많은 교인들이 율법에 대한 의식과 내용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실천하는 생활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2:17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두 가지 강령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가르친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묶어놓은 것입니다. 즉, 율법의 완성은 사랑 실천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의 고통은 함께 나누되 그렇게 되어진 사연은 하나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어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는 그 받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나누어야 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주변

의 이웃들을 보살핌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관리자일 뿐이며 소유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관리하며 사용하는 자에게는 더욱 더 아낌 없는 지원을 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6:38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중략)...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계산하지 마십시오. 나누어 주었으면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고 잠언 19:17에 말씀하셨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중략)...전에 너희도 애급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음이니라”고 신명기 10:17-19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곁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네 주변에 있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네 몸처럼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라고 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같이 네 이웃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권자이시고 삶의 성과(成敗)를 결정지어 주실 분입니다. 그러나 그 성공과 실패를 결정지을 사람은 바로 본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며 그를 통하여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하신 것처럼 그 이웃에게 행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기를 힘쓰면 하나님은 더 좋은 조건으로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성인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 V 한국 방송 설교		한 국 신 문 설 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 V 미국 방송 설교		라 디 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310 LA 미주 복음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 국 신 문 설 교			
기독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 통증탈출 양자칩

### 양자파동 에너지 칩

- 양자에너지(16번 공정을 거친 토션이라는 제5의 힘, 토션필드 토션장, 회전 전자파, 스핀파)가 30cm이상 방출
- 생체에너지 활성화, 최상의 컨디션 유지.
- 적혈구를 깨끗하게 하여 활동성을 강하게 하고 신속하게 젖산 배출.
- 12경락 365경혈 신속하게 풀어줌.
- 침시술 이상의 효과

▶ **신체 어느 곳이든 통증에 사용합니다.**  
천연 자연물질과 양자에너지를 융합시켜 자연 에너지를 방출하는 획기적인 제품으로 팔, 다리, 허리, 어깨, 목 등 통증이 있는 곳에 붙이는 반영구적 칩입니다.

▶ **면역력 강화**  
자연 에너지를 인체에서 공명, 흡수함으로써 활발한 기혈순환으로 신진대사가 원활하므로 체온이 약 0.5~1℃ 상승되어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Z-UP 전동거꾸리 LOLC Inc.** For the Spirit & Body

## 양자 깔창

### 양자 파동 에너지 쿠션 족초액 발매트

- ▶ **추천인**  
당뇨분들의 발보호, 평발인 분, 뒤꿈치 갈라진 분들, 족막염성 통증, 발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 발목, 발바닥, 발등 백색 건선 피부, 족부 혈행 원활, 직립형 활동 직업, 발 관련 질환자, 평안하고 아늑한 보행, 피로를 현격하게 감소
- ▶ **원리**  
걸을 때 3배의 하중에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주는데 제품 착용시 무거운 체중을 골고루 분산시켜 허리, 무릎 부담을 현저히 줄여줍니다.
- ▶ **제품의 특징과 효능 및 효과**
  - 1) 족초액 : 체중 분산, 구름을 걷는 느낌, 마사지 효과
  - 2) 은 : 항균, 향취 효과
  - 3) 원적외선 방출 분말 : 신체의 모든 부분을 원활하게 함
  - 4) EM 유용 미생물 : 굳은 각질을 제거해서 발을 부드럽게 함.
  - 5) 양자 에너지 처리 : 온 몸에 활력이 넘친다.
  - 6) 제품의 특징 : 신체의 여러 흐름을 빠르고 원활하게 함.

※사용시간만큼 쿠션감은 약해질 수 있으나 미생물 번식, 분해, 원적외선 방출, 양자파동 에너지는 반영구적으로 나옵니다.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디트리히 본회퍼, 오해와 편견 (10)

# 디즈니-마블의 <완다비전> 속 인식론과 본회퍼의 기독교 철학

<완다비전>, 자신의 주관적, 자의적, 구성적 인식 체계에 갇혀버린 인간 삶의 방식에 대한 슈퍼히어로판 알레고리 자기만족 위해 타자 조종, 기이한 죄악된 행태 집중 조명

### ◆신학과 인식: <완다비전> 속의 자의적 인식 고발

OTT 서비스 시장에서 넷플릭스의 후발주자로 서비스를 개시한 디즈니플러스의 TV 시리즈 <완다비전>이 미국 현지를 비롯, 디즈니플러스 콘텐츠가 시청 가능한 여러 지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국내에는 아직 디즈니플러스가 정식으로 서비스되고 있지 않기에, 이런저런 우회경로를 통해 시청하는 이들이 점차 늘어나는 듯하다.

<완다비전>은 2019년 개봉된 마블의 흥행작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후 어벤져스의 일원이었던 스칼렛 위치 완다(엘리자베스 올슨 분)와 안드로이드 비전(폴 베타니 분)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묘사하고 있다.

시리즈의 설정 전반은 조작된 현실에 관한 영화 <트루먼 쇼>(1998)와 TV 속에 펼쳐지는 가상현실에 관한 영화 <13층>(1999), 그리고 인간의 정신 조작 및 세뇌에 관한 영화 <인셉션>(2010)을 적절히 뒤섞은 모양새를 보인다.

염동력과 정신조작 능력을 갖고 있는 완다는 엔드게임에서 타노스 세력의 전멸 이후 자신이 사랑했지만 타노스에게 죽어버린 안드로이드 비전의 시체를 탈취하고, 웨스트뷰라는 마을 사람들을 염동력과 정신조작으로 점령한다.

이미 죽은 비전마저 염동력과 세뇌로 살아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완다는 스스로의 정신마저 조작하면서 비전과 함께 마을 일원으로서 자신이 꿈꾸던 평범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린다.

하지만 곳곳에서 완다의 정신조작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한다. 게다가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 완다조차 스스로 자신이 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지, 누구에게 조종당하고 있는지 모든 채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

자신이 알고 있고 체감하고 있는 현실이 실은 실재가 아니라 가상이자 허구라는 사상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 사상사 가운데 여러 모양새로 존재해 왔다.

서구에서는 이데아의 세계와 물질적 세계를 철저히 구분하는 플라톤주의가 대표적이고, 동양에서는 무한하고 근원적 실재인 공(空)의 영역과 만상(萬象)이 끊임없이 생멸하는 색(色)의 영역을 구별하는 불교사상이 대표적이다.

서양의 경우에는 감각적이고 물질적인 현실을 허상으로, 예지적이고 관념적인 형상을 실재로 보는 인식이 근대 계몽주의, 특히 칸트를 통해 역전되기 시작했다.

칸트는 관념론도 이성 판단으로든 실재 자체를 인간이 인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인간의 인식이란 각자 주관적으로 구성하는 표상들의 종합체, 즉 구성적 판단의 산물이라고 단언했다.

이로써 칸트는 인식 외부에 존재하는 실재 자체와 상당한 정도로 분리되어 있는 인간이 어떻게든 실제적인 세계를 인식하기 위해 우회적으로 마음 속에 자의적으로 구성된 인식 대상들의 세계가 인간이 현실적으로 만날 수 있는 세계의 전부라고 가르쳤다. 이러한 사고를 서양사상사에서는 선형론적 주관주의라고 부른다.

칸트의 인간 인식 비판은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의 적정 한계를 보여주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훗날 본회퍼는 칸트의 업적이 인간 지성의 불완전성을 전제로 하나님의 계시의 절대적 필요성을 수증하는 기독교적 계시론에 이바지할 요소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본회퍼가 인간 죄성의 다양한 양상 중 가장 크게 경계한 것이 인간 의식의 자의적 대상화 및 판단에 기반한 인식이었다. 이를 비판하는데 칸트적 인간의 한계 반성이 필요하다고 여겼던 것이다.



디즈니-마블의 TV 시리즈 <완다비전>.

### ◆신학과 계시: 계시 가운데서만 찾을 수 있는 진리

<완다비전>의 주인공 완다의 이야기 전체는 자신의 주관적, 자의적, 구성적 인식 체계 가운데 갇혀버린 인간 삶의 방식에 대한 슈퍼히어로판 알레고리이다.

칸트가 비판한 인간 의식의 주관성은 그 한계를 중점적으로 주목하고 유념하는 경우 실재에 대한 인간의 무지를 알려줌으로써 인간 의식을 초월해 있는 것, 즉 하나님의 계시 행위로부터 오는 가르침을 겸손하게 수용하도록 하는 긍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

반면 인간 의식의 주관성은 그 한계를 유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구성해낸 인식 내용에 집착하고 안주해버리는 경우 실재를 아예 배제하고 인간 의식이 구성한 대상들의 세계 자체를 부당하게 실제로 취급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본회퍼는 실제 서양사상사 가운데, 칸트의 통찰이 긍정적 계기보다는 부정적 계기로 작동함으로써 인간 의식 혹은 정신이 구성해낸 대상들을 실재와 동일시하는 데 이르는 독일관념론과 신칸트주의의 탄생을 촉진했다고 진단한다.

<완다비전>에 펼쳐진 완다의 조작된 세계는 그녀의 욕망을 날날

이 충족시켜주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타노스에 의해 죽어버린 연인 비전, 그리고 울트론에 의해 죽임을 당한 오빠 퀵실버 피에트로가 살아서 완다와 함께하고, 완다에 의해 정신이 조작되고 지배된 이들이 완다와 비전의 행복한 삶의 배경이 되어준다.

무엇보다 이들의 행복한 삶의 장면은 TV 주파수로 송출되어 시트콤 형식으로 방영되는데, 이는 완다가 생각한 이상적인 삶이 시트콤 속에 나오는 즐겁고 유쾌한 삶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현실에서 고통받고 좌절한 이들이 자신이 펼쳐낸 환상의 세계 속에서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것, 이것은 인류 전체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신적 자기방어 기제라 할 수 있다. '해피엔딩'을 보여주는 모든 문화와 문화 콘텐츠는 이 이상적 환상에 대한 욕구를 기반으로 끊임없이 복제되고 소비된다.

그런데 이러한 대리만족은 생생하게 느껴지는 현실에 대한 체면을 무시하고 회색시켜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의적으로 구성된 대상들의 세계는 기독교 신학의 비판을 받는다.

하나님의 계시는 결코 자의적인 인식과 환상에 갇힌 이들에게는 주어지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피조세계의 현실을 직시하는 이들에게 주어진다.

피조세계의 현실은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파괴된 인간관계, 그리고 인간 대 세계의 관계를 보여준다. 그리고 그 무거운 현실에 짓눌려 고통받고 죽어가는 인류의 운명을 깨닫게 해준다.

이런 가혹한 운명은 인간으로 하여금 단순히 괴로움과 좌절 속에서 허무에 압도되어 살아가게 만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힘입어 죄악의 현실, 고통과 죽음이 지배하는 현실을 극복하도록 자극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이에 본회퍼는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을 자기만족을 위해 마음대로 지어내려 하는 자의성이 곧 인간의 자기신격화 욕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진단한다.

<완다비전>의 주제의식 가운데는 이러한 본회퍼의 통찰과 일맥상

통하는 측면이 발견된다. 타자를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자기만족을 위해 조종하는 일이 얼마나 기이하고 죄악된 행태인지 집중 조명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본회퍼의 기독교 철학적 비판과 디즈니-마블의 문화적 비판의 방향은 궁극적으로는 상이한 지점을 향하고 있다.

본회퍼의 자의적 인식 비판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 자기를 운유하고 겸손하게 개방하도록 사람들을 이끌고 있다면, 디즈니-마블의 비판은 PC운동의 이념을 바탕으로 타자의 다름과 다양성 그 자체에 자기를 무한히 개방하도록 설득하고 있다.

이 차이점을 분별하는 한, <완다비전>은 인간의 죄성 혹은 비윤리성이 인간의 세계인식 방법과 태도를 결정하여 결국 진리가 사라져버리게 된 현실을 폭로하고 비판하는 알레고리로서 의미를 갖는 작품이라고 평할 수 있을 것이다. <계속>

### ◆박욱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연세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했으며, 동 대학원에서 조직신학 석사 학위(Th.M.)와 종교철학 박사 학위(Ph.D.)를, 침례신학대학교에서 목회신학 박사(교회사) 학위(Th.D.)를 받았다. 현재 서울에서 목회자로 섬기는 가운데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기독교와 문화의 관계를 신학사 및 철학사의 맥락 안에서 조명하는 강의를 하는 중이다.

필자는 오늘날 포스트모던 문화가 일상이 된 현실에서 교회가 보존해온 복음의 역사적 유산들을 현실적 삶의 경험 속에서 현상학과 해석학의 관점으로 재평가하고, 이로부터 적절한 기독교적 존재 이해를 획득하려는 연구에 전념하고 있다.

최근 집필한 논문으로는 '종교경험의 가능근거인 표상을 향한 정향성(Conversio ad Phantasma) 연구', '상상력, 다의성, 그리스도교 신앙', '선형적 상상력과 그리스도교 신앙', '그리스도교적 삶의 경험과 케리그마에 대한 후설-하이데거의 현상학적 이해방법' 등이 있다.



초능력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가정과 세계를 창조해낸 완다.



완다가 창조해낸 완벽한 삶은 시트콤 형식으로 외부에 송출되고 있다. 이는 시트콤 속에 그려지는 즐겁고 유쾌한 삶이 완다가 생각하는 최고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완다비전>은 인간 인식의 자의성과 비윤리성을 폭로하고 비판하려는 주제의식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본회퍼의 기독교 철학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아트설교연구원 인문학 서평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십자가가 가장 잘 어울리는 삶이 되기를



사람의 씨앗 전호근 메멘토 | 360쪽

속도, 효율, 돈에 포획된 우리 삶을 돌아보고 사람다움, 공동체, 시, 그리고 나를 지키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는 100여편의 에세이

“누군가를 돕는 일은 우리의 희망을 붙잡는 일이기도 하다”

타인의 고통과 아픔을 누구보다 예민하게 감지해온 우리 시대의 고전학자 전호근 경희대 교수의 첫 인문에세이

우리가 놓쳐버린 삶의 가치를 되돌아보게 하고, 삶에서 소중히 여겨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되묻게 한다.

명품 인생, 외부 환경 아닌 내부의 마음 단련해야 아무리 화려해도 남의 옷 빌려 입었다면 웃음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보신다 기독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더 관심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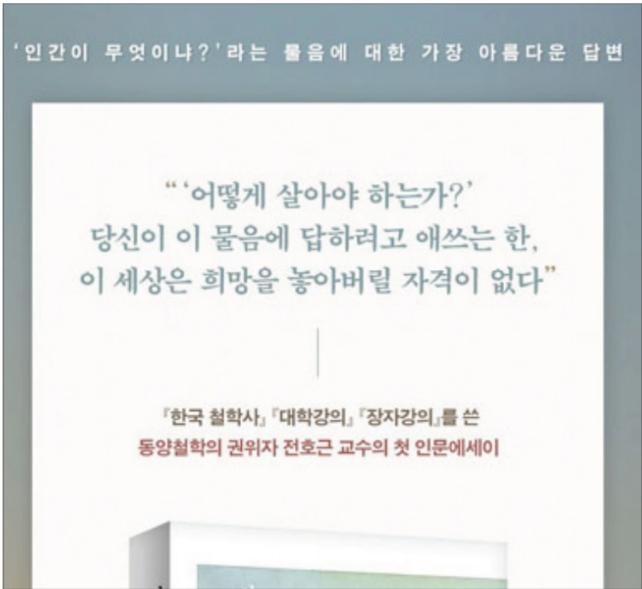
우리가 쉽게 하는 착각이 있다. ‘옷이 날개’라는 생각이다. 명품 옷을 입으면 명품 인생으로 보인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다. 아무리 명품 옷을 입어도 태가 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얼굴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얼굴은 삶의 결과일 때가 많다. 사람은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요즘 바디 프로필을 찍는 것이 유행하고 있다. 몸짱이 되는 것도 돈으로 되지 않는다. 돈으로 헬스장에 등록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운동을 대신할 수는 없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에게 남의 옷을 빌려 입은 것 같다는 표현을 사용한다. 좋은 옷이 태가 나기 위해서는 옷 못지않게 좋은 옷걸이가 필요하다. 몸짱, 얼굴이 입으면 저렴한 옷도 명품 못지않아 보인다. 사람은 누구나 주어진 옷이 있다. 자신에게 주어진 직업이 그렇고 환경이 그렇다. 누구나 옷을 입을 수 있지만 잘 어울리는 것은 별개 문제다. 명품 인생은 좋은 옷을 입는 인생이 아니다. 주어진 옷을 멋지게 소화해 내는 인생이다. 명품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면의 마음을 단련해야 한다.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로 재직 중인 전호근 교수는 그의 책 <사람의 씨앗>에서 내면을 단련하게 하는 다양한 생각들을 이야기한다. 저자는 동양 고전 전문가로서 <논어>, <맹자>, <사기> 등의 글을 현재의 시선으로 해석해 주며 낮은 통찰력을 제공한다. 저자는 동양 철학자 주희의 삶을 빌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는 젊은 시절 <중용>을 읽다가 ‘다른 사람이 한 번에 잘하면 나는 백 번 하고 다른 사람이 열 번 만에 잘하면 나는 천 번 반복한다’는 구절을 만나고는 마음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열정을 느꼈다.” 주희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주변에 당부한 말은 “학문에 힘쓰라” 단 한 마디였다. 아름다운 내면을 만드는 것은 어렵다. 끊임없이 자신을 단련해야 하고 자신과 마주해야 한다. 저자는 동아시아의 고대인들은 목욕통을 ‘감(鑑: 거울)’이라 하면서 목욕통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자신의 얼굴을 비취보는 거울로 쓰기도 했다고 한다. 동아시아 역사상 최초로 혁명을 일으켜 세상을 바꾼 인물인 탕임금도 자신의 목욕통에 ‘일신우일신’이라는 유명한 글귀를 새겨놓았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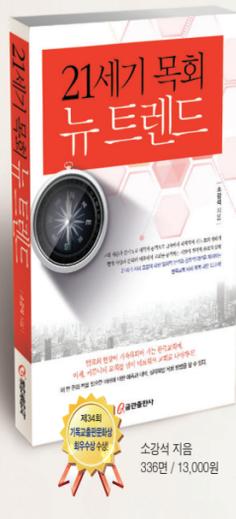
한다. 그 뜻은 “만약 날마다 나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있다면 내가 맞이하는 나날이 새로워질 것이고, 나날이 새로워지면 나 자신이 또 새로워질 것이다”로 자신을 돌아보아 단련한다는 의미다. 만약 리더의 직책이 자신의 몸에 잘 맞지 않는 옷과 같다면, 많은 사람이 고생하게 된다. 다산 정약용의 책 <목민심서>는 지방 수령이 부임해서 벼슬 자리를 내려놓기까지 지켜야 할 덕목과 지침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록하는 있는 실무서다. 다산은 먼저 목민관의 존재 이유를 물으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목민관은 왜 있는가? 오직 백성을 위해 있다. 아무리 실무에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해도 자신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자는 목민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흥년에 범죄를 저지른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흥년에 도적질한 자는 그다음 해에는 대개 양민이 된다. 이로 보건대 그들을 죽이는 것은 애석한 일이니 그 사정을 알고 불쌍히 여겨야 한다. 세금 징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봄에 곤궁한 백성을 구제하는 일은 마치 자식을 대하듯 하고, 가을에 세금 거두는 일은 마치 원수를 대하듯 해야 한다. 이런 리더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참 행복할 것이다. 이런 인생은 좋은 직책을 가졌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다. 내면을 잘 가꾸어 어떤 직책에서도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

다. <논어>의 두 번째 편은 별 이야기로 시작한다고 한다. 북극성만은 밤새도록 한곳에 머물러 움직이지 않아 길 잃은 자가 바라보는 나침반이자 머물러야 할 곳을 알려주는 상징이 되었다. 명품 인생은 북극성과 같은 삶이다. 많은 사람이 바라보며 따르는 인생이 된다. 기독교인은 세상에 북극성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 길 잃은 사람을 인도하는 존재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외면이 아니라 내면을 잘 단련해야 한다.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어도 남의 옷을 빌려 입은 사람처럼 보이면 아무 소용 없다.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기독교라는 옷이 우리에게 잘 맞는지 돌아봐야 한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보신다고 하셨다. 세상도 마찬가지다. 기독교라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더 관심이 있다. 십자가가 가장 잘 어울리는 삶이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옷이 그 어느 때보다 잘 어울리는 삶이 되기를 바란다.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내면이 아름다운 모습이기를 소망해 본다.

김현수 목사 행복하나무교회 담임 출처:아트설교연구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통합) 부총회장 당선 “한국교회 발전을 위해 크게 쓰임받길 기도합니다.”



21세기 목회 뉴 트렌드

교회 내분과 반기독교 세력의 공격으로 급속하게 파괴되어가는 교회 생태계 현대 사상과 문화의 배후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전략과 음모의 실체 21세기 시대 흐름에 대한 입체적 분석과 창조적 대안을 제시하는 한국교회 미래 목회 대안 보고서!

탈교회 현상이 가속화 되어가는 한국교회에, 이제 커뮤니티 교회를 넘어 네트워크 교회로 나아가라! 이 한 권의 책을 읽으면 미래에 대한 목표와 대안, 실제적인 목회 방법을 알 수 있다.



소강석 저음 336면 / 13,000원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

- 하나님의 청지기 40여 년 이야기 -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는 청지기 사상은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킴으로써 오는 고난도 각오해야 한다’는 의미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부지런히 전도할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온 전주동신교회와 신정호 목사의 이야기다. 교회 개척을 꿈꾸는 신학생, 목회자, 성도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신정호 저음 380면 / 15,000원

호남신학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원, 연세대학교연희신학대학원, 서남대학교, 동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미국 유신대학교에서 목회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전주노회장, 총회 간-농어촌 부장, 의뢰목 사기, 총회 정책개발연구원, 세계선교부장, 총회사기, 호남신학대학교 총동문회장, 한국 기독교보 논설위원으로 봉사했다. 현재 전북 CBS 운영이사, 호남신학대학교 객원교수, 한남대학교 이사, 한국노인회 회장, 전주동신교회 담임목사로 봉직하고 있다.

미주복음방송 개국 30주년

은혜로  
빛으로  
30년  
with Grace into Light



3월 11일(목), 10am **GBC 개국 30주년 감사예배**  
 장소 : 은혜한인교회  
실시간라디오 및 유튜브채널 생방송!

4월 22일(목), 9am **나눔On 캠페인 특별 생방송**

7월 17일(토), 7pm **'This is Korea!'**  
 장소 : Walt Disney Concert Hall  
팬데믹을 넘어 커뮤니티 회복을 위한 콘서트

5월 3일(월) ~ 9월 30일(목) **제 10회 GBC 복음성가 경연대회**  
5월부터 참가 영상 접수! 9월 시상!

10월 29일(금) ~ 31일(주일), 7pm **2021 CCM 찬양제**

